

사회적 농업의 실천과 담론을 전하는

사이통신 7



차례

다양한 시선

- 7 사회복지와 사회적 농업 / 김영란
- 18 사회적 농업과 관계된 중앙 및 지자체의 활동들 / 전영미

가꾸는 실천

- 33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 34 광주·전남권 사회적농업 농장&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 안내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 소개

- 38 사회적 농업 실천의 동행 파트너 / 이은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소개

- 51 야호 아지트 이야기 / 전병오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 60 사회적 농업은 고립을 막아낼 마을공동체 운동이다 / 박진숙

나누는 공부

- 75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사람과 함께한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의 경험 / 김정섭

- 93 전하는 소식



다양한 시선

사회복지와 사회적 농업 / 김영란

사회적 농업과 관계된 중앙 및 지자체의 활동들 / 전영미



사회복지와 사회적 농업

김영란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적 농업이 사회복지에게, 사회복지가 사회적 농업에게

최근 부쩍 사회복지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더듬어 보면 근 30년 넘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가르쳤는데도 막상 '사회복지 관점'이란 것을 사회복지 영역 바깥의 사람들이 물어오니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할 즈음, 평소 농촌복지를 공부해 왔던 저는, 사회적 농업이야말로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가 부

족한 농촌에 적합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 안에 사회복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도 같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도 같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한 느낌으로 몇 년을 보냈고, 지금도 사회적 농업 안에서 사회복지 실천은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그 내용과 구조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이 늘어나고 권역별로 농장을 지원하는 거점농장이 생겨나면서 농장의 운영뿐 아니라 일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농장 하나를 운영하기가 이다지도 어려운데,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이 일이 농장 참여자들에게 과연 좋은 것일까? 농장으로 인해 우리 마을에 활기가 생기고 있나? 이 정도만 생산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 끝에 그럼 우리들이 하는 일이 '농업'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인지,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사회적 농업'인지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을 짐작합니다.

이런 질문에 다다르면,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둘 다에 들어있는 'social'을 붙잡게 됩니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로, 최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생활할 때 이를 수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이라는 부사격 접미사가 붙으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와 관련된 어떤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와 관련된 복지가 되는 것이고, 사회적 농

업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와 관련된 농업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따져볼 것은 '조직화된'입니다. 조직화되었다는 것은 한 명 한 명 낱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통합되어 유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면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조직(혹은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인간 공동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활동적 삶의 총체(개인적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에서)가 담겨 있습니다. 낱사람들이 합의한 공동의 노력과 책임, 그러면서도 주체로서의 삶 등이 '사회적'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인간 공동의 목적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누구는 행복이라고, 누구는 웰빙(복지: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가 수단이자 목적입니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인간 개인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바퀴로 움직이는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개론 책에서는 사회복지학이 가치지향적인 실천학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사회복지란 한다는 것은, 사회 속에 나타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치

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빈곤이 인간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실천을 한다면, 이때 사회복지사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적합한 가치를 바탕으로 빈곤에 대한 관점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돕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에서는 어떤 가치를 중시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인권과 정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충족이 방해받을 때 혹은 억압받을 때 이것의 실현을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무엇'을 우리는 욕구needs라고 하고, 기초적으로는 의식주에서부터(생존의 욕구), 물리적 생존 수준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 사회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자아실현의 욕구)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인권'의 명분으로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저항할 힘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존재합니다. 추상적으로 평균적인 인간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이 가진 주관적인 욕구를 정

확하게 확인하고 사정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일(혹자는 이를 전문성이라고 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그리고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를 요청하도록, 나아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저항하도록 도와서 인권이 보장되는 쪽으로 실천하도록 배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가치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해 정의는 가치의 서열을 매기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인가?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에서 중요시하는 정의는 '분배적 정의'입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강해질수록 물질을 둘러싼 분배는 매우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앞서 말한 욕구 충족과 인권의 문제도 결국 누구의 물질적·정신적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하도록 분배할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그리스·로마시대 이래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도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채택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갖지 못한 사람, 즉 가장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분배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돕고 나누고 지키는 실천을 합니다. '도움'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돕는 행위가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나눔'은 상속이나 능력 등에 의해 소유하게 된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제도적 장치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즉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건강한 자가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기의 것을 반대급부 없이 주는 행위입니다(자신도 그런 처지가 된다면 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상호신뢰 하에 작동하므로, 엄격히 말해 반대급부가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기부금 등을 내어 사회적 자원을 나눌 때 가능합니다. 예컨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민간단체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지킴'은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고, 모두 인간다운 생존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념과 제반 실천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 이타주의, 자유, 평등, 정의 같은 이념과 인권운동, 노동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지킴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간 공동의 목표이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확보하는 정신적·실천적 행위입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본 사회적 농업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의 정치는 정신의 구성물인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실천 행위이면서, 동시에 도움, 나눔, 지킴의 행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가치social value가 사회에 스며들도록 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농업과 같은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김정섭 박사의 정의)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할 때,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욕구 충족을 요청하거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사회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임금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에서 이들은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아코보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신체적 장애인, 노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동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회로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농업의 대상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노동시장이라고 표현되는 사회 안에서 타인과 관계하는 개인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는 관계

해야 하는 타인의 배척(차별 같은)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관계를 단절함으로써(자기소외 같은)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복지와 사회적 농업의 유사한 일 혹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하는 실제적인 일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의 차원에서 이 둘을 논의할 때는 사회복지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적 농업을 견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회적 농업의 개념에 입각하자면, 사회적 농장은 농축업을 수단으로 삼아 농장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잇고, 그 관계의 경험이 농장 밖에서도 적용되어 사회적 배제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게끔 돕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원예나 동물매개 치료를 포함해서)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이용자들이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더 중시하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호전되거나 확장·강화되는 것은 부차적인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이라는 부사격 접미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복지를 중심으로 실천하며, 실천의 결과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개인이 많아지면 사회가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일종의 경제학에서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관계를 잇기 위해 사회에서 배제된 개인의 문제(그 사람의 사정, 문제, 희망 등)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문제가 있는 개인이 접한 사회적 배제의 경험, 그의 사회적 위치·관계·지지 혹은 차별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영역 모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겪은 사회적 배제, 즉 관계 부재(단절이나 소원)의 개인 경험과 사정들을 잘 알아야 하며, 관계는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 안에 있는 관계 상대들에 대한 변화도 동시에 고려한 지역사회 사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하는 사회적 농장의 필요

현실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체로 제도권 안에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관료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대상중심적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활동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에 의해 실천하고, 실천 성과의 증거를 가늠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작동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엄격한 이용자 자격기준을 채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자율성과 이용자의 주체성은 약화되고, 시간과 공을 들여야 가능한 사회복지사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주변의 인

간관계는 고려되지 못합니다. 앞서 말한 도움, 나눔, 지킴을 실천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천에 바탕이 되는 인간다운 욕구, 인권, 정의에 필요한 '성찰'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역시 사회에 영향을 받는 제도로서(저는 사회복지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제도이기를 바라지만), 무한한 경쟁, 무차별적인 파괴, 무분별한 욕망을 키우는 강력한 신자유주의에게 점령당한 사회에서 사회복지만으로는 개인에게 행복을 줄 수도,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 수도, 정의로운 가치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자기만의 삶에서든 타인과의 관계에서든 배제되고 소외되는 불행(불행한 사람)은 늘어갈 것입니다. 또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런 인간 사회는 비인간 사회까지도 점령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전쟁의 중간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출현한 사회적 농업이라면, 사회복지의 장점은 취하되 제도권 사회복지가 걸어온 길과는 다른 길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제약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앞서 사회복지가 관료화되었을 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실험에서는 수십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사회적 농

업과도 거리를 두는 여지도 고민했으면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현재 전지구적 환경과 자본의 급격한 변화가 요구하는 것은 '전환'이고, 우리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의 사회적 농장과는 다른 여건의 (농촌) 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 농업이 지향하는 사회통합이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짐'으로 완성되는 활동이기보다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몫, 즉 주체자(주권자)로서의 몫을 당당하게 되찾고, 사회 안에서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대하는 이웃으로서의 몫도 감당하는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구성원이 되도록 큰 그림을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한편, 사회복지가 사회적 농업과 협력한다면, 교과서의 수사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농장이라는 현장에서 관계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람을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로(사회자본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이동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와 가축기르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고 공생해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관계를 형성케하는, 사회복지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가장 확장되고 강력한 복지실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쇠퇴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생태사회복지와 사회적 농업의 혼합을 시도한다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사회적 농업과 관계된 중앙 및 지자체의 활동들[◆]

전영미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 서기관

사회적 농업과 관련될 만한 행정안전부 사업들이 있다. 지역사회와 사회적 농장 관점에서 관련성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읍·면·동 및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고리 삼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몇몇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 본 글은 필자가 속한 조직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세부계획과 추진, 예산확보 여건 등에 따라 2023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¹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세부 추진 과제이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확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행정복지센터를 행정 중심에서 ‘주민 생활 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새로운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할과 기능

찾아가는 보건복지와 더불어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등의 종합적 시각에서 읍·면·동 기능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읍·면·동에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또는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조직과 인력 확충, 주민력 강화를,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 관리,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맡아 두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전담팀은 복지와 간호 담당 공무원이 팀을 이룬다. 찾아가는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서비스 창구다. 3,501개 읍·면·동 중

1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2022.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2022.

3,312개소에 설치되어 12,723명(공무원 11,813명, 민간인력 910명)이 근무 중(2021년 말 기준)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복지와 간호 인력이 협력하여 종합상담, 방문상담, 위기 가구 발굴, 통합사례 관리, 건강관리, 의료자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시·군·구 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팀)에서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센터, 고용복지센터, 복지관, 자활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식 및 자원 등을 공유하면서 지역의 서비스와 자원을 발굴, 생산·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적 농장에서 이뤄지는 활동들이 지역의 복지자원 또는 사회서비스로 연결되어 이용될 수 있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복지센터)의 보건복지 전담팀, 시·군·구 및 광역 보건복지부서나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진천군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케어팜 직업재활 프로그램, 거창군 수송대 발효마을의 비건 베이커리, 장학교 프로그램 등이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한 사례들이다.²

2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21년 사회적 농장 활동 현황」, 2021.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³

마을복지계획⁴은 읍·면·동 주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단체, 주민 누구나)들이 모여서 마을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계획에 반영된 복지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복지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실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은 없으며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건강과 복지의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정서지원, 고독사 방지를 위한 말벗 서비스, 반찬 지원, 아동 방과 후 지원, 양육에 지친 부모 위로, 주민 취미 여가활동, 다문화 가정과의 교류 등 사회적 농장의 활동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조직 육성 시범사업(지자체 공모, '22~)

읍·면·동의 보건복지서비스는 특정 대상 이외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다만, 지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3 행정안전부,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안내서」, 2021.

4 계획 주체들이 협의하여 지역 내 마을계획,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등과 연계 수립할 수 있음.

로 돌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한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어촌, 동 지역보다는 면 지역, 동일 지역 안에서도 취약한 주거지에서 더 나타날 수 있다. 이 사업은 읍·면·동 마을 중심으로 주민들의(of) 돌봄 고민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for) 주민들의 손으로(by) 해결하는 주민자치 돌봄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 조직을 만들어 지속성을 유지하고, 돌봄조직을 중심으로 마을 거점과 읍·면·동 보건복지 전담팀과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

| 사업대상지 | | 마을공동체 범위 | 사업명 | 지역 |
|-------|------|--------------------|------------------------------|------|
| 부산 | 부산진구 | 3개 동 (8개 공동체) | 부산진구 온마을돌봄 | 도시 |
| | 영도구 | 1개 동 | 봉산마을 스마트 케어 | 도시 |
| 강원 | 춘천시 | 2개 면, 1개 읍 (16개 리) | 이웃복지사 육성을 통한 농촌형 통합돌봄전달체계 구축 | 농촌 |
| 충남 | 아산시 | 1개 면 (10개 리) | 송악면 마을통합돌봄 모델 구축사업 | 도농복합 |
| | 당진시 | 1개 동 | 당신을 위한 진심하우스 | 도농복합 |
| | 예산군 | 1개 리 | 자치돌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 농촌 |
| | 홍성군 | 1개 면 (32개 리) | 주민주도 장곡면 돌봄망 구축 | 농촌 |
| 경북 | 의성군 | 1개 리 | 의성형 마을돌봄공동체 육성사업 | 농촌 |

범사업으로 내년에는 지원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다.

◆ 지원규모: 시·도별 최대 국고 150백만 원(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지방비 5:5 매칭)

◆ 주요내용: 마을공동체의 돌봄조직 육성 및 관련 인력육성과 활동 지원, 읍·면·동 공공서비스 연계체계 및 광역 단위 지원체계 마련

마을공동체란 읍·면·동 단위 또는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자조 모임이나 조직 등을 의미한다. 아래 표는 8개 시범지역의 사업명과 마을공동체 범위 등이다. 홍성군 장곡면의 경우 지역 내 사회적 농업을 기반으로 한 노인 돌봄조직 모형과 활동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2020~20'22)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시, 춘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케어로 전환하여 분절된 노인 돌봄서비스(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시·군·구와 읍·면·동 사이에 권역 돌봄본부를 설치하여 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돌봄본부에는 복지담당과 보건담당 공무원, 지자체 보건소, 건강

5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 추진단,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안내」.

보험공단, LH 등 아홉 명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에서 사회적 농장의 프로그램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서비스를 연계하지 못했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노인 돌봄 서비스에는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체험여행 등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우울예방과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 읍·면·동 지역사회 자원 연계(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등) 등이 있다. 사회적 농업과 연계할 경우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시범사업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지자체 공모, 2021~)’

지역에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사업을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상황에 맞는 모델을 창출, 확산하는 사업이다. 주민자치 분야 사업으로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10곳을 선정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가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활성화 계획(5년간)’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

6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올해 1조 7,50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있으나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필요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터넷에서 기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⁶ 등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의 융합적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지역투자협약은 8부 1청의 32종 사업을 메뉴로 하여 해당 사업 관련 부처의 장관과 시장·군수가 3~5년의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지원대상: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2022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소 한정)

◆ 지원규모: 10개소 지원, 개소 당 2억 원 이내(국비·지방비 5:5 매칭, 최대 3년 지원)

◆ 주요내용: 주민참여형 민관합동 소생활권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 수립, 컨설팅 등

2 마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지자체 공모, 2015~)

주민소통 확대, 청년정착 지원,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공방 조성을 지원한다. 2015년에 시작하여 2021년까지 166개소의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였다.

◆ 지원규모: 약 10개소, 개소 당 1~2억 원(특교세 10억, 지방비 10억 매칭)

◆ 지원내용: 마을공동체 활동, 청년정착지원, 창작 및 전시, 주민공동 생산,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간조성, 활성화된 공방에 시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지자체 공모, 2021~)⁷

주거 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마을관리소 설치를 지원한다. 마을회관이 주민의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및 공구 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 주민 공동체를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담당한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마을관리소 10곳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규모: 10개소, 개소 당 1억 원(특교세 5억, 지방비 5억 이상 매칭)

◆ 주요내용: 간단 집수리, 택배보관, 아동 등하교 지원, 미니어처 공원 내 주민여가생활 교육공간 조성, 팩스·복사 이용, 주택 유지 및 관리, 아동 돌봄 서비스, 주민 민원 접수, 불법 쓰레기 신고, 홀몸 어르신 안부 및 식사 배달, 주민 교류 공간 등

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 '마을관리소' 생긴다」, 2021. 6. 8.

마을 세무사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마을세무사 1,474명이 56,645건의 상담을 하였다.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가까운 마을 세무사를 찾을 수 있다.

◆ 운영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 지자체 세정담당부서 및 민원실

◆ 지원내용: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등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지자체 공모, 2019~)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고, 정부-시민 간 네트워킹, 주민역량을 지원한다. 공간은 공동체 활성화, 청년 활력, 주민소통 등을 위해 활용되며, 2021년까지 73곳을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 5년 이상 장기사용이 가능한 공공 유휴·저활용 공간 보유 지방자치단체

◆ 지원규모: 개소 당 약 10억 원(국비·지방비 5:5 매칭) †균특회계 지역 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

◆ 지원내용: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지자체 공모, 2018~2023)⁸

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의제발굴 및 문제해결 협업활동, 저변확대, 사례연구 등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지역 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사업예산은 총 40억이며, 국비와 지방비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 지방비는 하드웨어 분야에, 국고는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다.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며, 2022년까지 8개소를 선정하였다.

◆지원대상: ①광역, ②기초, ③광역+기초 지자체

◆지원규모: 개소 당 10~20억 원, 국비 최대 20억 원(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지방비 5:5 매칭, 기본 3년간)

◆지원내용: 공간 조성(설계,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주민 혁신활동 지원(입주, 다목적공간 대관, 리빙랩, 홍보, 컨퍼런스, 거버넌스, 사례연구 및 아카이브 등)

8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734호. 2022년도 추진계획,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021. 11. 26.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길라잡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자체 공모, 2018~)⁹

청년실업 대책 마련과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국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 전국 국비 50%, 서울 30%, 민간취업연계형 전국 40%

◆지원내용: 4개 사업유형별 지원기준 제시

- 지역정착지원형: 연 2,400만 원 내외 인건비와 직무교육 등 지원(2년 내)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임대료 창업교육·컨설팅, 사업화자금 등 지원(2년 내)

- 민간취업연계형: 공공·민간의 다양한 일 경험, 임금, 직무교육 등 구직활동(1년 내)

-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연 2,400만 원 내외 인건비와 직무교육 등 지원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연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소개해보았다.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시기는 예산 성격에 따라 전년도, 당해 연도 등 달라진다. 글은 내부 자료를 토대로 확인이

9 행정안전부,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

필요한 경우 담당자 문의를 거쳐 정리했다. 여러 사업을 소개하다 보니 자세히 소개하지 못해 아쉽기도 하다. 자료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또는 인터넷에서 보도자료, 기사와 사업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사회적 농업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가꾸는 실천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광주·전남권 사회적 농업 농장&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 안내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 소개

사회적 농업 실천의 동행 파트너 / 이은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소개

야호 아지트 이야기 / 전병오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사회적 농업은 고립을 막아낼 마을공동체 운동이다 / 박진숙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2018년도 9곳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도 현재 전국에 총 83곳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농장이 있습니다.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을 토대로 한 돌봄과 교육, 일자리 제공 등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농촌 지역공동체를 가꾸어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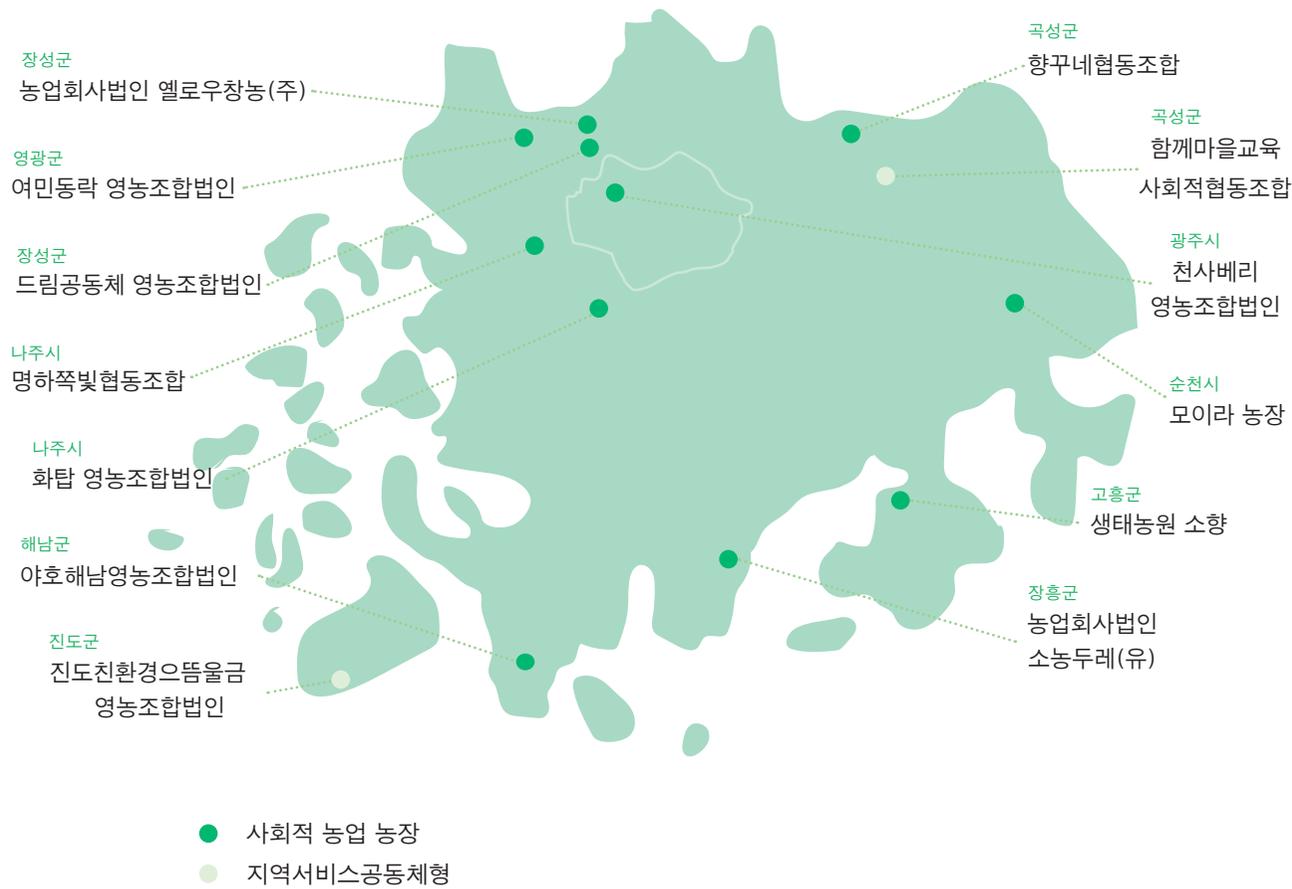
◆ 지역서비스공동체형

2022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총 22개의 지역서비스공동체형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체 단위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지역서비스공동체형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농촌주민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코디네이터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내 위치한 농장과 필요 시 사회·복지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유형입니다.

◆ 거점농장

2020년도 전국의 4개 거점농장을 시작으로 2022년도 현재 7개(경기·인천, 대전·충남, 세종·충북, 전남, 경남·경북·울산, 강원, 전북·완주)의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이 있습니다. 거점농장은 각 권역에 위치해 있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농장과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실무자가 함께 만나 상호학습과 교류를 촉진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거점 내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원·자문하고, 교육·연구·홍보 활동과 함께 관련 분야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광주·전남권 사회적 농업 농장 & 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 안내



광주·전남권 사회적 농업 농장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거점)

☎ 이은경
 ✉ faymdr2018@hanmail.net
 📍 전남 영광군 묘량면 동삼로1길 95-61
 🌿 노인, 아동청소년, 귀농·귀촌자
 🌿 업체류, 잡곡, 쌀, 야생화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 전병오
 ✉ yahohaenam@naver.com
 📍 전남 해남군 현산면 만안길 110-1
 🌿 다문화청소년, 귀농·귀촌자
 🌿 홍화나물, 올리브묘목

화탑 영농조합법인

☎ 박수진
 ✉ hwat2274@naver.com
 📍 전남 나주시 세지면 화탑길 61
 🌿 고령자, 지적장애
 🌿 허브키트

명하쪽빛협동조합

☎ 윤옥현
 ✉ totocece@naver.com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명하길 29-10
 🌿 귀농·귀촌자
 🌿 쪽, 염채식물

농업회사법인 옐로우 창농(주)

☎ 이기영
 ✉ yss0941@naver.com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죽탄쌍정길 8-11
 ☎ 아동청소년
 🌿 백향과, 배

드림공동체 영농조합법인

☎ 고훈숙
 ✉ jump2929@hanmail.net
 📍 전남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길 6
 🌿 고령자, 청소년
 🌿 사과

항구네협동조합

☎ 문영규
 ✉ shynysheen@naver.com
 📍 전남 곡성군 곁면 초곡길 59
 ♿ 귀농·귀촌 청년
 🌾 쌀, 잡곡

농업회사법인 소농두레(유)

☎ 최성훈
 ✉ noneukdid@hanmail.net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정장길 29-6
 ♿ 아동청소년, 귀농·귀촌자
 🌾 쌀, 토종잡곡

천사베리 영농조합법인

☎ 오승애
 ✉ osa9785@naver.com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입석길 264-7
 ♿ 정신장애인
 🌾 대추, 아로니아, 블루베리

모이라 농장

☎ 양재순
 ✉ yan977@naver.com
 📍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길 434
 ♿ 발달장애, 노인
 🌾 산마늘, 표고버섯, 황칠잎차

생태농원 소향

☎ 김원호
 ✉ ghdi66@naver.com
 📍 전남 고흥군 두원면 금오길 19-77
 ♿ 발달장애
 🌾 매실, 체리

광주·전남권 지역서비스공동체형

함께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 박진숙
 ✉ pjsdaemo@gmail.com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오죽로 20-12
 ♿ 고령자, 아동청소년, 귀농·귀촌자
 🌾 돌봄, 교육,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및 제공

진도친환경으뜸올금 영농조합법인

☎ 김용환
 ✉ kimyhmm@hanmail.net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송월길 20-27
 ♿ 고령자, 아동청소년
 🌾 돌봄,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및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의 동행 파트너

광주·전남권 거점농장 여민동락 사회적 농장

이은경
여민동락 사회적 농장 이사

농업 활동

여민동락영농조합은 영광군 묘량면에 위치하며, 법인 소유 400평의 농지를 포함하여 총 6,500평의 논밭에 수도작(벼)과 잡곡, 고추, 참깨, 배추, 무 등 계절채소를 재배한다. 또한 비닐하우스(300평)를 이용하여 연중 엽채류를 생산하고, 수선화·맥문동류의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다. 먹거리 농산물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로컬푸드매장과 친환경직매장, 한살림,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에 공급·판매하고 있으며, 공공급식 분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업 활동의 중심인



사진 1 어르신들이 칼국수 면을 만들고 있다.

력은 지역의 고령자(할머니농부)들이며, 농장의 임직원들이 고령자들의 활동을 보조·지원하는 생산구조이다. 여민동락영농조합의 농업활동은 다양한 지역민의 연중활동(노동·소득창출·사회활동 등)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사진 1, 2).

사회적 농업 활동

지역 고령자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활동을 2009년부터 시



사진 2 새벽녘에 어르신들이 친환경 먹거리농사 김매기 활동을 하고 있다.

작하여 작목반(모시 재배) 및 작업반(모시송편 제조) 활동이 한계에 닿을 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18년 9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농업의 모델을 발굴하는 기회를 맞았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지역사회 구성원을 서로 연결하는 농촌공동체복지 그물망을 짜는 작업으로 예술평부(고령농), 미래농부(고등학생), 꿈꾸는농부(중학생), 어린이농부(초등학생), 예비농부(귀농귀촌청년)가 참여하는 돌보는 농부학교를 구상하였다. 지역어르신 40여 명과 성지고등학교 10명, 송학중학교 10명, 묘량중앙초등학교 10여 명, 도시청년 다수가 참여하는 다양한 농업연계 활동을 시도하였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었다.



사진 3 돌보는농부학교 어린이농부의 희망농장 프로그램.

2022년 활동은 고령자 농작업 활동을 통한 소득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프로그램¹, 돌보는농부학교 어린이농부의 희망농장 프로그램², 지역연계 치매관리 건강유지프로그램³을 운영하며, 지역의 고령자와 아동·청소년, 청년세대가 따로 또 함께하는 지역사회통합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사진 3, 4).

1 묘량면 고령자(61~87세, 평균 76세) 24명이 참여했는데 1인가구 75%, 여성 100%였다. 활동을 통한 소득은 2022년 4월 기준 22만 원(평균 22시간 활동)을 수령하였고, 꽃나들이와 건강교육을 실시하였다.

2 어린이농부학교는 묘량중앙초등학교 4학년 정규과정으로 월 2회 진행되며, 학생



사진 4 어린이농부학교 모내기 활동.

14명(특수반 2명 포함)과 담임교사, 특수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예술농부 2명이 보조교사로 참여하며, 모내기와 벼베기 활동 시에는 6명의 예술농부들이 참여하고 있다. 희망농장은 학교농지 300평을 논(50평), 하우스(50평)로 구획하여, 벼농사와 채소, 과수(매실, 블루베리) 재배활동을 한다.

3 일자리 등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66~102세, 평균 84세)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인가구 95%, 여성 100%, 노인맞춤돌봄 이용 20%, 노인장기요양 이용 2%다. 영광군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체조 등 기본프로그램과 음식조리 주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스스로 건강을 돌보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치매예방 셀프케어self-care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점농장 활동

사회적 농업 및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의 조직과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으로 선정되어 전남·전북·광주광역시를 권역으로 활동하다, 2022년(전라북도 거점농장 추가 선정)부터 전남·광주 지역의 사회적 농업 실천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장의 초기 사업수행 시 사회적 농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정·보완의 임무를 수행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중점 활동

전남·광주권역에는 여민동락사회적농장을 포함하여 총13개의 사업자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지역서비스공동체 유형의 2개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농장 1:1 자문·교육

2022년도 거점농장의 첫 번째 활동은 새로운 사업참여자(1년차)의 사

회적 농업 활동계획서를 검토하고, 사회적 농업 취지에 맞게 사업내용 수정·보완, 사업비 사용지침에 맞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검토하는 작업이었다. 기준틀을 정해두고 틀에 벗어난 것을 정리하는 작업일 듯 보이지만, 각 사업자의 내용을 이해하고 농장에 맞게 틀을 넓혀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사회적 농업은 아직도 그 내용과 형식에서 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형 사회적 농업의 내용을 담아내는 과정에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곤란을 겪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과 각종 보고서이다. 사회적 농업 사업비에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수행 시 행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몫이다. 거점농장은 사업자들이 시행착오를 줄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 활동 전반 내용을 자문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별 협의체 활동

‘사회적 농업’은 용어 자체도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지도서나 교육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업자 스스로 연구·계획하고, 사업자들끼리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를 지도자로 삼아 학습하고 있다. 2020년 거점농장 초기 당시, 거점농장이 주최하여 상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매월 회원농장을 순회방문하면서, 주최 농장에서 교육 및



사진 5 회원농장 순회방문.

체험, 교류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회원농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농장의 시설현황을 벤치마킹하고, 농장의 활동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회원농장에 선보임으로써 상호간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고, 주최농장의 행정 담당공무원도 함께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거점농장에서는 주최농장의 준비과정을 함께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사진 5, 6).

권역워크숍

한 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정리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워크숍을 연말에 진행하였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학습 기회를 마련



사진 6 회원농장 순회방문.

하고, 사업자들 스스로 연간 활동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차년도 활동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5년째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사업자도 증가하고 관심 또한 확대되면서, 시군 행정기관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올해의 권역워크숍은 사회적 농업 사업자와 시군 행정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 민·관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사회적 농업 교육·연수 활동

거점농장은 당초 사회적 농업의 교육·연수 활동을 주요 임무로 정하고 있어서, 사회적 농업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을 계획·운영하였

다. 기초교육은 ‘사회적 농업의 이해’를 주제로 하는 기본교육과 선진 농장 탐방을 통한 사례교육으로 구성하였고, 심화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의 모델’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전국 4개의 거점농장은 각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권역중심으로 운영하였는데, 사회적 농업의 유형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의 ‘2022년 사회적 농업 공동연수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심화교육과정도 전국 사회적 농장이 참여하는 열린 교육으로 운영되며, 여민동락에서는 노인돌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하반기에 3회, 학교연계 아동·청소년 활동을 담은 농촌교육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사업자 모니터링

사회적 농장의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활동사항 점검 및 활동농장, 네트워크 구축 상황, 시설개선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별농장의 사회적 농업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거점농장에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참여자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타 부처의 사업과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제안하거나 사업관련 권고를 하기도 한다(사진 7).



사진 7 사회적 농업 사업자 모니터링.

사회적 농업 실천 및 경험의 정리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노인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함께 활동하며 돌봄 및 교육, 직업재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장 실천이 거의 다인 사회적 농업의 현실에서 왕왕 비농업 부문의 활동에 대해 전문성과 자격 문제로 공격받곤 한다. ‘기후위기 시대,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잘사는 생태공동체’, ‘마을공동체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기’, ‘농촌에서 공동체 복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주제로 해남, 진안, 영광에서 사회적 농업 포럼을 개최하였다. 사회적 농장들의 현장 사례를 발제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사회적 농장들의 아동·청소년 교육활동과

장애인 돌봄의 의미와 나아갈 바를 찾고, 지역서비스공동체 유형 사회적 농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사단법인 사회적농업협회 주관으로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전남 광주 거점농장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7개 주제를 선정, 각계 영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농업의 이론을 다져가고 있다.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자료집을 연말에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운영매뉴얼 개발

사회적 농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사회적 농업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여민동락사회적농장 활동을 기반으로 2020년에 ‘노인돌봄’ 분야 매뉴얼을 정리하였고, 2021년에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적 농업 매뉴얼을 정리하였다. ‘여민동락사회적농장 운영매뉴얼’은 책자로 발간하여 사회적 농장 및 희망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규농장 발굴을 위한 사회적 농업 설명회

농업과 복지의 이례적 만남이 농촌 현장에서는 남의 일 같기만 하고, 농정업무를 담당하던 행정담당자도 사회적 농업이 어색하다. 사회적 농업을 널리 알리고, 희망농장을 만나기 위한 설명회를 나주와 완주

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는 전남·광주지역에 보다 가까이 들어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소개

야호 아지트 이야기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농장

전병오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대표

토모코를 만나다

한 여인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참이다. 이들은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삼삼오오 다니는 사람들이고, 말투로 봐서 일본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우선 지금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다음에 놀러올 때는 종교 전파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건 가능하겠다고 했다.

며칠 뒤 그중 한 여인이 다시 찾아왔다. 약속대로 종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웃 마을에 사는 결혼이주 여성이고 당시 네 자녀

를 두고 있는 토모코라는 일본인이었다. 나는 그때 나의 관심사를 꺼냈다.

“토모코는 삶에서 무엇을 하길 바라세요?”

이 질문이 그녀에게는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모두가 ‘김치를 담글 줄 아는가, 한국어 인사말을 아는가’ 하는 한국에서 갖춰야 할 기초적인 생활에 대해서만 말하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Artist Way』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을 같이 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토모코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 꽃을 가꾸어 화단을 꾸미고 이웃에 나누는 것은 내가 도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야호 프로그램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토모코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 프로그램 내용은 다양했다. 토모코가 좋아하는 꽃심기를 같이 하기도 하고, 일본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일본과 한국의 전래동화나 놀이를 비교하며 직접 해보기도 했다(지금 토모코는 다섯 아이의 엄마이고, 학교로 수업을 나가는 일본어 강사가 되었다. 토모코의 정원은 해가 거듭할수록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채워져가고 있다. 바깥담과 길가, 그리고 집 앞 개울 언덕까지...).

돈을 원해요! &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후 야호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초기에 야호가 설정한 대상은 다문화 여성과 이주민(귀농귀촌인)이었다. 토모코처럼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을 위해 좀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와 포부가 컸다. 토모코의 사례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원하는 삶을 파악하고 그곳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하고자 했다.

우리는 함께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다문화 여성과 지역민들,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출연하고 만들어가는 <우리도 햄릿일까?>라는 연극을 기획했다. <햄릿>의 대사를 자국어로 낭송하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신도록 했다. 다문화 강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아들을 초대해서 엄마의 강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베트남 여성 OO는 평소 집에서 친정으로 전화도 제대로 걸 수 없었다고 한다. 남편과 아들이 베트남어로 말하는 소리를 시끄럽다고 듣기 싫어해서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은 엄마의 베트남 문화 강의를 듣고 엄마의 베트남어 이름을 처음으로 알았다. 또 연극에 초대된 남편은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독백 부분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각색해 자국어로 낭독하는 아내의 연기를 보고, 베트남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했다 한다.

이런 문화활동과 함께 농산물을 활용한 케이터링 사업, 부각과 강

정 판매로 수익을 내고자 했다. 그러나 1년이 마무리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이 두 해째로 넘어갈 시점에서 여러 갈래로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

“문화고 뭐고 돈이 필요하다. 친구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200만 원 가까이 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자리를 달라!”-베트남 여성

“나는 반나절 일거리와 육아 시간이 필요하다.”-몽골 여성

“우리는 농사를 짓고, 우리의 공간을 가꾸면서 생태적 삶을 살고 싶다.”-귀농인들

이 당시에는 야호가 체계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요양사나 식당일을 찾아 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몽골 여성은 반고용 상태로 반나절 일을 하고 다섯 살 여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귀농인들은 자신의 공간들을 특색있게 가꾸면서 야호와 함께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1 현산남초등학교 학생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야호 아지트, 지금 할 일은?

사회적 농업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생태 변화와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되었다. 이주여성들은 원하는 방식대로 일자리들을 찾아가고 있고 더 이상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 손길을 필요로 하는 건 지역에서 부쩍부쩍 크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이었다. 그래서 야호는 지역 아이 돌봄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다섯 해에 접어든 야호, 사회적 농업 농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산남초등학교 전교생 열 명과 텃밭을 함께 가꾸기로 했다. 점점 줄어가는 학생 수로 자괴감을 겪고 있는 이웃 초등학교 학생들의 친구가



사진 2 현산남초등학교 학생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되어주고, 텃밭으로 이웃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을 독려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했다. 이웃 청년 농사꾼도 초대하고, 생협 관계자를 초대해서 좋은 먹거리의 중요성을 함께 나눈다.

야호 아지트로오는 매주 해남중학교 특수학급 친구들이 방문한다. <지구별 마음밭 여행학교>라는 이름으로 입학하여 시기별 작물을 함께 가꾸고, 마을 귀농인들과 쿠키도 굽고, 음료도 만들어본다. 익숙해지면 지역민들을 초대해서 농가 카페를 함께 운영해보려 한다.

야호 사회적 농업 농장의 주 작목은 홍화나물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버린(어머니들의 말씀이다) 여든이 다 되어가는 어머니들과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홍화나물



사진 3 어머니들과 함께 홍화나물을 정리하고 있다.

을 채취한다. 올해는 생나물을 낸 후에도 한 번 더 거두어서 데쳐 말리는 묵나물 작업도 하고, 데쳐서 얼려 놓는 작업도 했다. 이것은 농산 가공 재료로 쓰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매우 주도적이었고, 어머니들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일거리를 늘려서 어머니들의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것도 야호의 보람이고 즐거운 일이다. 앞으로 홍화나물을 활용한 농산 가공 제품을 개발해 보려고 시도 중이다.

이렇게 4년여의 사회적 농업 농장 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은 지역의 돌봄 영역은 매우 통합적이라는 것과 서로돌봄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자존감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 전체가 사회적 농업 농장이 되다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농장의 주축이 되는 멤버는 귀농귀촌인 7명과 1명의 외국인 이주여성이다.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지역민들이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 하나도 야호에 얽매어 있지 않다. 주축 멤버들은 더욱이 자신들의 공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야호가 큰 분란 없이 공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인지도 모른다. 개성이 강한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개인적 욕구들은 개인 공간을 통해 표출하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서는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힘을 모으니, 큰 불만을 가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듯하다. 야호도 우선 이들에게 필요 부분을 제안하고 여건이 안 맞으면 다른 인력을 모색하는 절차를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서류상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다. 혼자 귀촌해서 사는 여성이 적은 평수의 밭을 갈 때 혼자 손으로 하기는 힘들고, 기계를 빌리자니 기계값이 안 나오고 할 때 밭을 갈아주고, 갑자기 주문이 밀릴 때 반나절 손을 빌려주는 이웃으로 야호가 있기 때문이다. 야호도 정산이나 회계 부분에서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한두 명의 고정 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인력비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



사진 4 야호 아지트 전경.

이 자신들의 다양한 문화아지트를 건설(?)하고 의기양양하고 흡족하게,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야호는 이들에게 든든한 중심점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하나의 다양성을 가진 이웃 문화로 존재해도 좋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마을 어르신들이 죽음을 자신의 마을에서, 자신의 집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돌봄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야호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온 마을이 의기투합해야 조금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농업은 고립을 막아낼 마을공동체 운동이다

박진숙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지난해 겨울밤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은 열기로 후끈했다.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에 멋진 우리 조합원님들이 도서관을 가득 채워주셨고, 눈여겨 봐왔던 분들을 조합원으로 모시고 자 초대하다보니 도서관은 만석이 되었다. 썩인절미를 한입씩 먹으며 분위기는 말랑해졌고 사업보고를 들으며 우리의 노력들에 놀랐다.

전교생 35명인 죽곡초, 초고령화 사회인 죽곡면에 마을학교,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협력하는 데는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의 힘이 크다.

죽곡면 지역 예술가와 마을활동가, 학부모 14명이 시작하여 지금은 23명의 조합원이 운영하는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생태텃밭 정원 농부선생님으로, 스스로배움터 지기님으로, 그릇살림배움터, 바느질살림, 밴드체조, 치매예방, 인생예술, 마을목공, 논살림, 대황강생태탐방, 달려라손큰부엌, 자매의부엌, 도서관 1박2일, 모험놀이터, 농민인문학, 수지침, 국선도, 죽곡문화유산탐사대를 끌어왔다. 조합원 모두가 함께한 강빛살이마을학교랑 동네예술가전시회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활동이 확장되어 마을학교로 이어졌고, 돌봄과 교육의 마을생태계를 이어가기 위한 마을공동체활동으로 뻗어나가고, 주민자치회까지 출범시켜 자치프로그램을 꾸려온 것이다. 우리 지역의 돌봄과 교육 문화를 위한 우리 협동조합원들의 따스고 단단한 여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침체되어가는 농촌마을 죽곡면에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농업활동을 통한 지역사회공동체돌봄을 이끌어내고자 사회적 농업을 함께 공부했고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은 그간 우리 조합원들이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함께 상상하며 즐겁게 펼쳐내는 자리가 되었다. 조합원들 모두에게 각자의 아이디어와 지향하는 바를 계획하여 발표하게 하였고 각각의 활동들의 접점을 찾아 서로 연결하기도 하며 예산을 배분하여 계획을 세워갔다.

귀농한 농부조합원은 자신의 열두 다랭이 밭을 공유농장으로 내놓겠다 하였고 이곳에서 함께 퍼머컬처와 토종종자 증식을 하겠다는 이가 힘을 보탤다. 다랭이 생태공유텃밭에 장애인과 아이들, 농촌유학, 6개월 살기팀, 할매들이 한 다랭이씩 농사지어 참기름도 짜고 과일, 채소도 가꿔서 공유냉장고도 채우고 농부장터도 열자고 하였다. 직접 키운 얇은빵이밀로 통밀빵도 만들어 한 달에 한번 마을빵집을 열겠다는 조합원도 있었다. 농장에서 재배한 작물은 동네 건강한 밥집에 납품하여 수익도 올리고, 반찬도 만들어 식사마련이 어려운 분들께 반찬 나눔도 하자고 제안한다.

장애인들과 노인들도 참여하는 마을밴드를 만들어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를 진행하겠다는 이도 있었고, 찾아가는 마을목공팀을 꾸려 생활불편을 해소해주겠다는 목수조합원, 생태환경과 생태감수성을 지키는 '걷는독서'를 운영하고 싶다는 분, 코디네이터가 되어 죽곡면 복지지도를 완성해보겠다는 주민자치활동가,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보겠다는 분, 그리고 이 모든 활동들을 사진으로 담는 어르신사진교실을 꾸려보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놓치지 아까운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함께 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은 다랭이생태공유농장, 죽곡초 한울고 생태텃밭정원, 농부장터, 공유냉장고, 공유미싱, 마을빵집, 반찬나눔, 죽곡마을복지지도, 마을



사진 1 다랭이생태공유농장.

밴드, 찾아가는 마을목공, 사부작사부작 걷는독서, 어르신사진교실로 진행하기로 했다.

삼태마을공동체와 강빛마을이 다랭이생태공유농장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마을학교와 학교가 함께 정규수업으로 진행하는 생태텃밭정원과도 연결하여 마을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인 꽃두레협동조합과 죽곡면 농부들,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농부장터를 꾸려내고, 오감만족체험관과 귀농인들을 연계하여 찾아가는 마을목공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마을빵집은 한울고 해봄센터의 조리실을 활용하여 빵을 만들고,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죽곡마을119와 연계하여 반

찬나눔과 죽곡마을복지지도를 운영할 것이고, 주민자치회 문화분과, 죽곡초, 대황강아지매 라인댄스팀이 협력하여 마을밴드와 찾아가는 마을음악회를 꾸려내기로 하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넓은 사업인데 겁없이 계획하게 된 데는 그간의 협력시스템 덕이 컸다.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사업의 실무자들이 죽곡농민열린도서관에서 매주 1회씩 회의체계를 갖추고 서로 연계와 협력을 하며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이들에게 실무자들이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의 코디로 활동하며 죽곡면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각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돌봄네트워크가 탄탄해지는 효과도 있지만 지역활동가의 양성과 지원에도 큰 의의가 있다. 그간 이렇다 할 활동비 없이 어렵게 지역활동을 이어오던 이들에게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작지만 안정적인 활동지원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열정적인 세 코디의 안정적인 활동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예비활동가를 양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좋은 마중물이 될 것이라 본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반찬나눔

새로 부임해오신 죽곡면 복지팀장님과 주무관님이 도서관에 오셨다.



사진 2 반찬나눔.

복지사각지대 지역민에게 반찬나눔을 하고 싶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할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하신다. 주민자치회 자치돌봄인 죽곡마을119와 마을학교 공동체활동인 달려라손큰부엌을 묶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밥집들의 참여를 요청해서 활동을 확장하자고 결의했다. 물론 전체 컨트롤과 사례 관리는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에서 죽곡마을복지지도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섬진강 어부이며 직접 잡은 물고기로 35년째 식당을 운영하시는 환경분과위원장님과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님과 함께 죽곡면 식당을 돌며 취지를 얘기하고 참여를 요청드렸다. 열두어 곳이 전부인 죽곡의

식당 중 여덟 군데를 들렀고, 일곱 곳에서 함께하시겠다는 고마운 마음을 얻었다. 빠듯한 살림이지만 공간을 헐고 내놓는 그네를 만나고 오는 길에 우린 얼싸안고 환호했다.

3월부터 시작된 반찬배달은 죽곡면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면사무소에서 일회용이 아닌 스텐 반찬그릇과 국그릇을 준비하여 식당에 전달해준다. 참여 식당에서 두어 가지 반찬과 국을 만들어 전해주면 한 달에 한 번은 마을학교 달려라손큰부엌에서 반찬과 국, 빵 등을 만든다. 주민자치회 죽곡마을 119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취합, 소분해서 배달하고 반찬통을 수거해온다. 수거해온 반찬통을 씻어서 소독해놓고 면사무소 복지팀, 주민자치회, 사회적농업팀이 각 지역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문제발생 시 다각도의 지원을 논의하며 해결한다.

죽곡초와 한울고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인 생태텃밭정원

“잎쌈~잎쌈~!! 저번저번때 내가 심은 팝콘옥수수가 흙을 뚫고 막 나왔어요. 나 땀에 우리 학교랑 울동네 사람들 팝콘 먹을 수 있겠어요!!” 3학년이 책임증식하기로 한 토종쥐이빨옥수수가 뽀족이 새순을



사진 2 한울고 생태텃밭정원 대나무 티피.

내밀고 빠른 녀석들은 벌써 쭈욱 올라와 있다. 소중하게 보여주는 녀석의 표정은 이미 고소하고 달콤한 팝콘을 한입 가득 먹은듯하다. 학교생태텃밭정원이 슬슬 만들어진다.

아이들의 삶을 위한 마을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규수업 시간에 마을학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협력하며 진행할 것인가? 교육과정은 어찌 꾸려갈까? 수업시수는 어찌 확보할까? 우리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꾸미는가? 마을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마을농사 선생님들은 목사동면 한울고에서 죽곡면 죽곡초까지 왔다리 갔다리 함서 뛰댕긴다. 한울고에선 농사샘과 마을

샘이 프로젝트팀과 인턴십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죽곡초에선 담임샘과 마을샘, 아이들이 팀이 되어 국어, 미술, 사회, 과학 교과와 연계하여 전 학년 여섯 가지 색깔의 정원을 만들어낸다. 경운기와 포크레인으로 함께해주신 마을 어르신들도 생전 처음 본 틀밭을 만들자니 당황해하시다가 금세 ‘허허~’ 하시며 팀이 되어주신다.

단단한 흙을 밟아 생명을 들어올리는 생태텃밭정원의 생물들이 궁금해 학교에 오고 싶어 미치겠다는 아이들, 생전 처음 하는 농사에 흠만지기를 꺼려하며 주춤주춤하시더니 아이들보다 더 신난 교사들. 마을과 학교가 함께 짓는 생태농사는 토종종자지킴이까지 이어간다. 흑수박, 쇠뿔가지, 삼층거리대과, 쥐이빨옥수수, 지게감자, 옥밭이토마토, 호랑이콩 등을 농사지어서 음식으로 해 먹고 씨앗 받아서 동네 어른들과 나눔까지 하는 순환농사이기에 의미도 크다.

생태텃밭정원에 큰 욕심도 담았다가 너무 과한가 싶어 하나씩 덜어 내기도 하곤 한다. 자본의 재생산구조인 학교 교육의 틀을 부수고 신자유주의시대 뿔뿔이 흩어진 농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마을교육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싶었고, 기후위기 시대 대안이 될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생태농사를 해보고도 싶고, 개밥만큼의 대접도 못 받는 농의 다양한 가치를 조금이라도 되살리고 나누고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게 자연순환의 틀 안에서 쉼을 찾는 시간도 주고 싶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께 마을이 그저 보조자가

아닌 든든한 협력자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 가장 큰 욕심은 마을 아이들에게 농꾼인 마을 어른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을 이어가는 어른들이자 마을 선생님이라는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마을의 어른들에게는 소멸 위기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에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지원 속에 이쁘게 성장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다.

지난 5월 5일에 진행한 찾아가는 마을음악회와 농부장터의 모습

우리 조합원들은 기획팀을 꾸려서 왜 해야 하는가?부터 죽곡마을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랑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 것인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방법 등을 몇 차례 회의를 하며 반복하여 공유하였다.

마을밴드팀이 공연기획을 맡은 마을음악회는 그야말로 마을공연으로 꾸몄다. 대황강 할매들이 라인댄스랑 노래공연을 하고, 강빛마을중창단이 합창을, 죽곡초 아이들의 춤마당과 교가제창, 마을밴드의 색소폰 연주, 파출소 경장님의 어버이날 노래, 그리고 아이와 어른 참여자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관광버스 춤마당까지 오랜만에 실컷 웃고



사진 3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덩실덩실 몸을 흔들었다. 마을음악회는 주민자치회와 함께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 매달 죽곡의 마을들을 찾아가며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특색있고 재미있게 꾸려나갈 것이다.

삼태리 생태농부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넝쿨동부, 박오이, 단호박, 청호박, 토종참외, 조선대파, 흑수박 등 토종종자 모종이랑 마늘쫑, 유정란, 취나물, 햇감자가 봉지봉지 꾸러져 농부장터 매대에 올라왔다. 가격은 사는 이가 스스로 정하기로 했는데 순식간에 완판되어 수익금은 다음 농부장터 종자돈으로 쓰기에 충분했다. 꽃두레협동조합과 삼태리공유농장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농부장터는 죽곡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의 만남이다. 이들이 잘 만나서 지역 어르신들의 주머



사진 4 죽곡초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마을학교 분식집.

니가 두툼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서로 돌볼 수 마을이 되길 바래본다.

도서관 앞 팔각정자에서는 죽곡초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마을학교 분식집이 차려졌는데, 아이들의 최애 메뉴인 떡볶이와 떡꼬치가 후라이팬에서 알맞게 익어가고, 시원한 아이스티와 수박이 곁들여졌다. 한편에선 삼태리 이장님과 할매들이 토란인절미를 썰어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좋아라 하신다.

목공하는 이는 도마를 만들어 와서 내놓고, 도자기 하는 이는 그릇을, 바느질 하는 이는 손바느질 소품들을 아기자기 꺼내놓는다. 아이들은 인형이랑 학용품들을, 어른들은 안 쓰는 생활용품이랑 옷가지들

을 한보따리씩 가져와 걸어놓는다. 아나바다 장터는 청소년들이 맡아서 야물게 꾸려내고, 어르신사진교실을 담당하는 조합원님이 이 모든 멋진 장면들을 사진으로 담아주셨다.

죽곡면의 유일한 학교이며 전교생 35명인 죽곡초 친구들에게 우리 마을 어르신 1,700명 모두가 마을교사가 되어 함께 키우자 했고, 마을 어르신들의 평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 모두가 서로 돌보자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게 이렇게 오늘처럼 같이 하자고 여는 말을 했다. 5월 5일 죽곡면 마을음악회랑 농부장터는 마을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겼다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꾸려낼 사회적 농업은 이미 모두가 약자로 전락한 농촌에서 각자도생의 길이 아닌 서로 돌보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다. 제도복지이든 공동체복지이든 그 지향점을 대상자의 자립으로 둔다면 두 길 모두 선호한다. 아이들이건 노인들이건 장애인이건 약자들에게 자립은 혼자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대안이 많아지는 것이라 본다. 의존은 알아야 할 수 있고 관계맺기가 되어야 가능하다.

우리는 지역서비스공동체활동을 통해 마을 안에서 의존할 대안의 연결망을 더 많이 만들어내어 고립이 아닌 서로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나누는 공부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사람과 함께한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의 경험 / 김정섭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사람과 함께한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의 경험*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배경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농업을 경험할 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은 자주 거론된다. 현재 선진국들에서도 정신질환은 장애

* 이 글은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 Social Farming Ireland'가 발간한 책자 《사회적 농업과 정신건강 서비스 Social Farm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요약, 번역한 것이다.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는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산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원문은 그 홈페이지 (<http://www.socialfarmingireland.ie>)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며, 여러 사회문제나 경제적 비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네 사람 중 한 명꼴로 평생 한 번쯤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 아일랜드에서 정신건강 돌봄 부문은 중대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지원하도록 투자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 분야의 자원은 부족하다. 아일랜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가 아일랜드 경제에 끼치는 부담은 연간 110억 유로에 이른다.¹

한편, 아일랜드에서는 일찍이 2006년에 정신질환을 지닌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제공하는 정책 방향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 관점을 표명한 중요한 정책 문서가 《변화를 위한 비전A Vision for Change》인데,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 ◆ 개인에 중심을 둔 치료 접근방법
- ◆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 등에 대

1 2022년 4월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15조 원이다. 아일랜드의 현재 인구는 약 502만 명이다.

처하기 위한 다학제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방법

- ◆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통합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맺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 내부에 자원을 축적하고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을 극대화하는 접근방법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은 “개인에 초점을 두고 사회 및 지역사회의 포용을 지향하는 회복 모델”을 추구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과 관계를 맺는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에게 사회적 농업이 주는 편익은 유의미하고 다양하다. 사회적 농업 참여 경험에 따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개인의 반응은 질환의 중증도, 개인의 역량, 사회적 농업 같은 종류의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회적 농업 경험의 특수한 성격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2 정신건강과 사회적 농업의 편익

사회적 농업 활동 경험이 정신질환자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를 논의한 연구들이 적지 않은데, 그 ‘유익한 점’을 대략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 자연이 지닌 치료적 가치: 자연과의 상호작용이 집중력, 에너지, 자아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거나, 식물이 자라는 과정 같은 생물학적 주기에 연결되고 그것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거나, 직접적이고 관찰가능한 결과를 생산해내는 동식물을 ‘돌봄’으로써 긍정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음을 밝힌 연구가 많다.
- ◆ 직업 활동: 직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일반적으로 유익하다는 점을 밝힌 연구가 많다. 사회적 농업은 기술skill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정신질환을 지닌 사회적 농업 참여자가 향후에 심화된 직업 교육훈련을 받거나, 보호작업장에 고용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농장에 파트타임 또는 전일제로 고용될 수도 있다.
- ◆ 의미 있는 활동: 사회적 농장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것은,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다. 사회적 농장에서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행복감이 증진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 ◆ 사회적 연결: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 등과 관련될 때가 많다. 사회적 관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정책 입안자나 실천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농장에 머문다는 것은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됨을 뜻한다. 참

여자는 농부, 수의사, 이웃 등의 여러 사람과 함께 농장에 머물게 되는데, 이는 ‘고립의 악순환 고리’를 부수는 계기가 된다.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 모델에서 핵심이 되는 사회적 관계란 농업인 및 농가 가족과 맺는 사회적 관계다. 그런 관계가 지니는 ‘평범함’과 농가 구성원과 연결됨으로써 만나는 자연스러운 따스함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3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들의 사회적 농업 경험²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가 추구하는 사회적 농업 모델은 참여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한 보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2 이 절의 내용은 “접경지역 사회적 농업 Social Farming Across Borders: SoFAB”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중 24명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이다)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회복지사·간호사·의사 등 종사자,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요약 소개한 것이다. 그 연구는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가 지원하여 이루어졌다. 8주에서 12주 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여 활동했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등과 면담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였다. 면담 조사는 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란 평소에 지역에 설치된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며, 사회적 농장을 찾게 된 것도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였다.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의 직접적 연계에 기초한다. 이하에서 등장하는 참여자(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팀Community Mental Health Team’ 전문가로부터 돌봄을 받는 이들이다. 그 전문가란 대개 사회복지사이거나 작업치료사다. 이들 참여자가 사회적 농업에 참여한 동기는 ‘농장 활동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 ‘야외의 자연환경에 있고 싶다는 욕구’, ‘육체노동을 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욕구’,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지역사회에 포함되고 싶다는 욕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사회적 농업 경험에 대해 ‘매우 좋았다’(24명 중 21명), ‘좋았다’(2명),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1명)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편익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는데, 아래의 언급이 그런 경험의 전체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내가 흥미를 가진 것이어서 즐거웠습니다. 그게 아주 치료적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미는 일도, 페인트를 칠하는 일도, 나무를 사포로 매끄럽게 닦는 일도, 소나 아이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치료적이었고, 아시다시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농장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미 여러 사

람에게 말한 것이지만, 즐거웠습니다. 당신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시골로 나가 조금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도시나 읍내town를 떠나서 시골로 나가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참여자들이 표현한 ‘사회적 농업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 ◆ 정신건강 측면의 편익
- ◆ 사회적 편익
- ◆ 신체적 편익
- ◆ 교육 및 기술 측면의 편익

정신건강 측면의 편익

참여자들이 사회적 농장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할 때 ‘재미’, ‘행복’, ‘즐거움’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농부 M씨에게 여기 농장에 오는 날에는 오지 않는 날보다 더 많이 웃게 된다고 말했어요. (...) 그 농부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 더 노력해야겠다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연과 연결됨으로써, 흙을 접하면서, 동물을 만나면서 치료적 효과를 크게 보았다는 참여자가 많았다. “여기로 나오면 하루가 밝고 완전히 마음이 열립니다. 호수, 산, 동물,

하늘을 볼 수 있고 주변의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비가 와도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데, 비가 오는 걸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다 사이클cycle의 일부입니다.” 농민들도 자연 속에 머무는 것이,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다양한 것들에 노출되어 감각하는 것이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동물을 돌보거나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을 주기도 하는데, 농민들은 대부분 그 것이 긴장을 늦추고 차분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느꼈다.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감, 성취감, 목적성 등을 새롭게 느꼈다고 말하는 참여자도 많았다. “여기 농장은 아주 긍정적인 장소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게 만듭니다. 성취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일이 끝날 때가 되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내가 한 노동의 결실을 볼 수 있는데, 상추 같은 것들을 한 묶음 따서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해보고, 목재를 자르고, 소 키우는 것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자신감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농장의 농민들 중에도, 참여자가 농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농작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숙달하게 되면서 ‘개인적 능력에 대한 느낌sense of capacity이 증대’되는 것을 관찰했다는 이들이 많다. 이는 자기존중감 증대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

회적 농장에서 이루어내는 참여자 자신의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며 농민이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촉진된다.

참여자들의 언급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테마는, 사회적 농업이 무언가 참신한 것을 경험케 하는데, 그 참신함을 통해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얻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농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날마다 해야 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언제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지기도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확실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하고, 만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농장 활동은 단순하고 명료한 목표를 지닌 것이어서, 참여자들이 농장에 오는 그날그날 하루 단위로 자기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다른 곳에서 경험한 것과 비교할 때, 사회적 농업이 가져다주는 주목할 만한 편익이다.

사회적 편익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아마도 사회적 농업이 참여자의 정신건강이나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일 듯하다. 그 핵심에는 농민이나 농가 식구들과 친구 관계

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놓여 있다. 참여자들은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꼈고, 순수한 환대를 받았고, 농장 팀의 일원이 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의 언급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농민 T씨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합니다. 그 사람의 농장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알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들이 농장에 계속 오는 것이 T씨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씨는 그런 일을 성큼성큼 해 나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T씨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고, 문제가 있어도 아주 쉽게 해결합니다. 공황panic이나 호들갑 떠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low key 일이 이루어졌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였고, 나는 그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 스스로 크게 기운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C라는 장소를 벗어날 때, 나는 여기를 향해 오고 마침내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참여자들은 압박을 느끼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농민들과 나란히 농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느낌에 대해

말했다. 면담에 응했던 농민들도 참여자들과 대화가 시작되고, 이야기하고, 관계가 발전한 것은 바로 그렇게 ‘나란히 일할 때’였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란히 서서 함께하는 경험은 식탁으로도 이어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농업의 경험 중 핵심을 이룬다. 한 농민은 이렇게 회고했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나의 개떡 같은 인생에 관해 지난 10년 동안 만났던 모든 상담사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지난 10주 동안 당신에게 이야기한 것이 더 많습니다.’”

사회적 농장을 방문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농가의 가족에서부터 이웃사람, 부름을 받고 찾아온 농가 가족의 친구, 일이 있어서 농장에 들른 사람, 지역사회의 식료품 가게나 꽃집이나 전자제품 상점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 등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여러 참여자가 언급한 것인데, 더 큰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농업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신의 친구나 가족과 대화할 이야기거리와 관심사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체적 편익

육체노동을 할 기회를 만났다는 것이 다수의 참여자에게 아주 큰 유

익함이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참여자 스스로 몸을 쓰는 노동을 아주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지나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나는 몸 쓰는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농장에 오게 되었고, 농장 일을 좋아합니다. 내 소도 있어요. 한 번에 소를 11마리나 얻게 되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펴는 일을 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그런 일을 하면서, 안 쓰던 근육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나는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는 아주 게으른 생활을 했는데,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 버릇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게는 약간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 일이 적당히 요령을 피우며 편하게 만 있던 나를 끌어내는 기회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지 않아서 피곤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나서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신체적으로 피곤해지는 단순한 즐거움이 좋았다고 말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교육 및 기술 측면의 편익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회적 농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는다. 이는, 특히 아일랜드 농업 부문에 흔한 복합영농을 하는 농가에 가서 농장 활동을 할 때 더 그렇다. 배우게 되는 기술에는 소 사료 주기, 다른 가축들에게 먹이 주기, 가축 돌보기, 계란 줍기, 잡초 뽑기, 텃밭 가꾸기, 울타리 고치기, 헛간이나 건물 바깥 공간 청소하기, 목재 자르기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실용기술을 배우는 게 어떤 참여자들에게는 특히 매력적이었는데, 이들은 대개 공식적인 교육 현장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농민이나 그 가족들은 대체로 요리, 목공, 말 다루기 등의 기술도 갖추었는데 그런 것을 참여자들과 나누었고 참여자들이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소재가 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들 중 많은 이들이 영농에 관해서 새롭고 대안적인 접근방법, 가령 유기농업이나 동물복지나 생물다양성과 같은 것에 관해 참여자들과 지식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예전에 농장 활동을 접해본 참여자들에게는, 사회적 농장을 방문함으로써 잊었던 지식이나 기술을 다시 기억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 중 다수가 농장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이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기술을 모릅니다. 제가 다니는 직업훈련 센터에서는 매일 똑같은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이것(사회적 농업)은 만난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모르는 사람을 처음 봐도 숨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M씨(농민)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걸 듣고만 있어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전에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농장에 오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게 제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4 결론

다양한 종류의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농장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현재적·잠재적 편익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과 그 가족들이 보여주는 따스하고 자연스러운 ‘연결’ 그리고 자연 속에서 동식물과 관련된 농작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기술 습득과 생명에 대한 배움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타

인과 함께 있는 일을 즐기고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을 증진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성과 측면에서 말하자면,³ 스스로-돌봄self-care, 자신감, 동기유발 등의 측면에서 대다수 참여자에게 발전이 있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대략 말해서, 사회적 농장에서 보낸 시간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의 웰빙이나 발전과 관련된 여러 차원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 임상의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방식으로, 유쾌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방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방식으로 사회적 농장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런 종류의 지원이 특별히 적합하고 유익할 만한 고객들에게 제공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들에게, 사회적 농업은 혁신적인 기회다.

3 원문에는 사회적 농업 참여자들의 여러 측면(신체운동 기술, 작업 형태, 사회적 포용, 의사소통, 혼자서 쓸 수 있는 생활기술 등)의 변화를 작업치료 관점에서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번역하지 않았다.

전하는 소식





현장 스케치

2022년 1회차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

이이수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이 지난 4월 18일 온라인 ZOOM을 활용하여 첫걸음을 시작했다. 콜로키움은 주제를 정해놓고 각 분야의 전문가, 연구자,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날 함께 논의한 주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임연구위원 김정섭 박사가 발제를 맡은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가?’였다. 논의가 이루어진 주된 내용은 사회적 농업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정의 내리는 것의 필요성 및 적절성이었다. 또한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의 지향점 및 향후 계획들이 함께 논의되기도 했다.

보통의 행정사업은 사전에 개념을 정립하고, 지침으로 만들어져 실행된다. 이와 달리 사회적 농업은 행정사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행되어왔다. 이는 사회적 농업이 가진 특별한 점이다.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왔던 자발적 실천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회적 농업은 이러한 실천들이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개념을 정의내



사진 1 2022년 1회차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리거나 이름 붙이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사회적 농업 실천사례들을 담아내기가 어려워진다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 농업 개념화에 앞서 어떤 실천과 활동이 담겨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료하지 않은 사회적 농업의 개념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혼란을 주기도 한다며, 현장 실천가와 협력 조직들의 사례 및 이야기들을 잘 모아 어느 정도 실천의 지향점을 구체화시키고, 개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농업의 실천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사회적 농업이 담고자 하는 가치와 활발하게 논의되는 중요한 키워드

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남은 7회의 콜로키움을 통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콜로키움의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다음 콜로키움은 5월 16일, '사회복지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

용어 및 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이름의 의미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만 수동적으로 번득인다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의는 결국 어떤 종류의 행위, 활동, 실천 따위에 ‘사회적 농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날 수 없다. ‘이름 붙이기’는 깊게 파헤쳐볼 문제다. ‘내 이름은 김정섭’이라고 하지만,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다. 어느 철학자의 이름에 관한 성찰을 조금 길게 인용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려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이름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르는 방식이라는 그 기원의 사회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미 사회적으로 구속된 자신의 존재방식이 언어적으로 결절된 것인 셈이다. 따라서 이름을 자기-표현의 일종으로 여기는 생각은 안이하다. 그것은 마치 투표를 하면서 조국

의 민주주의에 이바지한다고 믿거나, 신형 핸드폰을 사면서 자신의 존재를 개성화한다고 믿는 칠뜨기팔뜨기들의 실속 없는 영리함을 닮았다. ...**(중략)**... 이름은 임의로 취사할 수 있는 자기-표현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을 불러 주는 명명의 공동체 속에서 수동적으로 생성·유지된다. 자기가 보는 자기가 영영 자기일 수 없듯이, 자신의 이름은 자신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수동성이야말로 인간이 언어적 존재homo linguisticus라는 사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름-부르기를 통해 내 자신의 존재에 타인들의 존재가 구성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중략)**... 정작 중요한 사실은 이름의 그 고유한 단독성조차 오직 이름-부르기라는 사회적 상호관계의 맥락context 속에서만 (그것도, 가끔 운이 좋을 경우에) 수동적으로 번득인다는 점이다. 가령 여러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이 이름-부르기·붙이기의 행위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작동 구조를 밝히려 했던 것은 이름의 기원에 잠복한 사회적 수동성의 네트워크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종교인들의 대다수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닮았다. 코란을 읽은 다음 이슬람교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며, 불경을 읽은 다음에 불교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의 신자들에게 경전이란 신앙을 생성하는 매체가 아니라 이미 생성된 신앙을 체계 속에 등재, 재구성, 혹은 강화하는 도구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선택했

다고 믿는 것은 사후적 재구성에 따른 도착倒錯이다. …(중략)…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타인들이 나를 이르는 방식을 ‘내 이름’이라고 믿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래에서 태어난 내가 다시 되돌아오는 인과율적 도착의 심리 속에서 가능해진다”(김영민, 2010: 56-59).

결론의 일부분을 성급히 말하자면, 어느 농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는 활동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 농업’의 의미를 획득하는 건 아니다. 그들이 하는 일정하게 패턴화된 행동을 두고 누군가(들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불러야 그것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의미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내용의 발표가 있던 어느 자리에서, ‘젊은협업농장’의 상임이사 정민철 선생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행복농장이나 젊은협업농장, 우리가 홍성군 장곡면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사회적 농업을 하자’고 결의하고서 시작한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필요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밖에서 사람들(가령, 김정섭 박사 같은)이 찾아와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두고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규정되어 버린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종류의 이름 붙이기는 ‘선택과 배제’를 쌍둥이처럼 낳는다는 사실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이름 붙이기는 경계선

을 긋고 어떤 범위를 한정하는 일로 귀착된다. 즉, 경계선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고, 안쪽의 것은 선택하고 바깥쪽의 것은 배제하는 분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것은 권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나눔의 체계로 되어 있는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 나 이러한 나눔들이 모두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많은 나눔들이 그 아래에 어떤 비객관적인 요소들의 작동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미셸 푸코의 기본적인 통찰이다. …(중략)… 한 사회에서의 나눔의 여러 체계들은 반드시 배제의 체계를 함축한다. 나눔의 이편과 저편에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드리우게 된다. 정상인과 광인의 나눔, 건강한 사람과 병인의 나눔, 반공주의자들과 용공분자들의 나눔, 합법적인 사람들과 위험인물들 또는 범죄자들의 나눔, 남자와 여자의 나눔, 성인과 어린이들의 나눔, 공직자와 일반인의 나눔 등 한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의 나눔은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가 아닌 평가의 문제이며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이정우, 1995: 64-65).

“이러저러한 활동만이 사회적 농업이다”라고 언명하는 순간 그 범주 밖의 것은 배제된다. 더구나 그 언명의 주체가 물질적·상징적 자원을 임의로 또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갖고 분배할 권력을 가졌다면,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 혹은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여러 사람에게

게 현실적이고 참여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그리고 정부와 연결되어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연구자가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 지침에 “이러저러한 활동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경계를 긋는 순간 경계선 바깥에 있는 이들은 지원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¹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지난 4년 동안 그런 ‘이름 붙이기’ 혹은 ‘개념 정의’ 문제로 여러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 제기를 당하는 이들이 불편한 상황에 처했던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나처럼 정부 관계자와 의사소통하면서 정책 개발 및 시행에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도 마찬가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 적이 여러 번이다. 보조사업 대상자가 아니게 된 이들로부터 때로는 ‘어용 지식인’이라는 식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직업이 어용지식인인 걸 어쩌란 말인가, 나도 먹고살아야 하는데.”라면서 격분을 달래야 했던 순간도 있었다. 거꾸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더욱 명료하고 협소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직면한 때도 있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며, 모호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설득당하지 않는 상대방 앞에서 민망한 상황이었다. “산뜻하게 선 굵기를 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내 학술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텐데,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는 식으로 스스로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크건 작건 ‘권력’을 쥐고 무언가를 규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이와 유사한 곤경을 수시로 직면할 테니, 그리 유난 떨면서 고뇌할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가령, 어떤 대학 교수는 어떤 학생의 시험 답안을 눈앞에 두고 평점 F를 줄 것인가, D를 줄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사실상 D와 F를 가르는 선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관찰한 끝에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것인지, 병이라고 할 것은 아니고 조금 우울한 상태라며 돌려보내야 할지를 고민할 수도 있다. 알고 보면, 경계선이라는 것들은 대개 모호하다.

문제는 정책이 관련되는 순간 정부가 개념을 정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정책사업 지침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서는 보조금이든 지식이든 정보든 그 어떤 자원도 동원할 수 없는 게 행정체계의 규칙이기 때문이다.² 한계가 있더라도 정책에서는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이와 달리, 권력의 자장(磁場)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술 영역에서는 개념을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개념 정의의 문제 자체를 두고 논쟁을 벌일 수도 있으며,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개념 정의를 ‘미결 사건’으로 남겨둘 수도 있다. 그런다고 해서 당장에 누군가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말하기에는 학술적 논의가 편하지만, 학술적 논의가 반드시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뜸이 길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의의 문제를 두고 어떤 주장들이 있었으며, 정책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혀 보으려 한다. 즉, 학술 수준이든 정책 수준이든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확정적으로 정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혹자가 보기에는 게으름의 징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으름(?)에도 이유가 있다는 변명을 앞에서 길게 꼬아서 늘어놓았다. 결론 없이 끝나는 듯할 수 있지만, 모든 글이 확고한 결론으로 마무리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결론이 없어도 과정을 상세히 알게 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외국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확실히 그렇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아무래도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가 유럽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외국의 학술 또는 정책 연구들에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일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확산되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아울러 살펴본다. 그 와중에 비슷한 듯 다른 듯 쓰이는 여러 어휘들의 등장 배경과 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도 덧붙여 소개할 것이다. 이상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재 맥락에서 사회적 농업은 어떻게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논할 것이다. 앞에서 굳이 “이름의 의미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만 수동적으로 변득이다”고 언급했듯이, 맥락을 살피지 않고서는 최선의 텍스트를 증류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³

3 그렇지만 높은 순도로 증류해낸 텍스트(사회적 농업이란 이러저러한 것이다)도 맥락이 변하면 쓸모 없을 뿐 아니라 해로운 암세포가 될 터이다. 나는 이 글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맥락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맥락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농업의 기원을 이루는 유럽에서의 논의를 다루더라도, 그것을 경전 삼아 맹종하지는 않되, 필요하고 타당한 것은 받아들여 한국의 맥락에 맞추어 쓰겠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갖겠다는 말이다. 즉, 사회적 농업에 관하여 절대로 흔들지 못할 어떤 정통성의 계보 따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가령 체세포는 유전자와의 소통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과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상식인데, 낙원으로부터 야간 도주한 텍스트의 도둑들은 그 텍스트의 유전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리를 성역화한다. 컨텍스트가 잊혀지고, 그럼으로써 소통이, 태아가, 그리고 터[基]가 끊어진 셈이다. 태와 터를 잃어버린 독재자들은 도둑질해온 혼성 모방품 텍스트를 내세우며 이를 경전화한다. 하지만 예

2. 정의定義들

2.1. 유럽

근대적 형태의 사회적 농업 실천과 더불어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용례의 기원은 이탈리아에 있다.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잘리아Franco Basaglia가 1960년대부터 심각하게 비인간적인 환경이었던 정신질환자 수용소asylum를 해체하자는 정신보건 분야 탈시설 운동을 전개하면서 설립했던 협동조합들 중 농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불린다)이 아직도 운영된다.⁴ 프랑코 바잘리아는 폐쇄병동을 나

부터 경전이란 천심이 민심으로 스며들어 오래 굳어진 터 위에서 민심의 힘으로 다시 솟아올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법이니, 훑쳐온 텍스트에 금박을 입히거나 금송아지 등쪽에 십계명을 새긴다고 쉽게 이름값을 하는 것이 아니다. 컨텍스트에서 텍스트 나고 자궁에서 아이 나는 법 아닌가. …(중략)… 텍스트의 사기꾼들은 다중의 무비판적 맹 신의 빈틈을 노리고 든다. 그러다가 힘이 붙으면 울타리를 쳐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주변을 체계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다. 박해의 심도가 더할수록 이 사기꾼들의 세력은 그 성격이 종교적으로 변한다. 그 종교의 이름은 ‘텍스트의 우상 숭배교’쯤 될 것이다. 뒤가 구린 놈이 힘을 쥐는 것 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에 산적한 사례들이 있으니 양식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시라.”(김영민, 1996: 21-23).

4 European confederation of industrial and service cooperatives(CECOP) 홈페이지 (<http://cecop.com>)를 참고. 사회적 농업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프랑코 바잘리아의 활약을 소개한 한글 자료로는 최근에 번역 출간된 책 《정신병원을 폐쇄한 사람》이 있다.

와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간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적인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케 하려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실천이 확산되다가⁵ 199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에서도 급격히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2005년에는 이탈리아 농촌에서 농축산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571개에 달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농축산업 활동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일컫게 되었다(Fazzi, 2011: 123). 이후, 사회적 농업 실천은 유럽에서 일종의 운동 성격을 지니며 확산되었다. 물론, 유럽 국가들마다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의 형식, 관련 제도나 정책은 아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공통적인 경향을 포착할 수 있는데, 그런 ‘공통적 경향’을 개념화한 용어로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쓰인다(표 1).

〈표 1〉에 제시한 여러 개념 서술에서 어떤 ‘공통된 경향’을 찾을 수 있는

5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적으로는 비영리 결사체이며, 1942년부터 비영리 결사체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보건복지, 제3섹터, 시민사회, 지방분권, 정부 재정의 리스크 등 여러 측면에서 특수한 이탈리아적 맥락 속에서 출현한 협동조합 형식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1991년에 관련 법을 만들면서부터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돌봄, 보건 측면의 돌봄, 교육 서비스, 주택 공급, 재가 돌봄, 아동 돌봄, 문화 활동, 환경보호 등의 ‘돌봄 활동’과 통상적인 수준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the disadvantaged people)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활동’을 수행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개관으로는 Thomas(2004)를 참고.

가? 몇 가지 핵심어가 눈에 들어온다.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 ‘특

표 1 유럽의 선행 연구들에서 드러난 ‘사회적 농업’ 개념 서술

| 구분 | 내용 |
|------------------------------|---|
| Iacovo & O'Connor (2009: 11) | -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 |
| Iacoco & O'Connor (2009) | -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 사회·보건 돌봄이라는 두 개념에 기초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농촌의 자조연결망(self-help network)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local)의 복지 체계에 속한 비공식적 사회연결망과 농업 자원에 기초한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 |
| Hassink (2009: 21) | -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사회적/건강 돌봄이라는 두 개념 안에서 시도되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 - 농촌 지역에서 사회 서비스를 촉진하려고 (또는 만들어내려고) 동식물 모두를 포함해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 - 예: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에 기여하는 재활, 치료, 보호작업장, 평생교육 등의 서비스. |
| Fazzi(2011: 123) | - 돌봄 및 사회-재활 통합. -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노동 통합(즉, 고용).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 |

| | |
|--|---|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및 일반 대중(public)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촉진하려고 적절한 환경을 만든 데 농업자원(동물 및 식물)을 활용하는 일련의 실천. - 특별한 요구(needs)를 지닌 특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과 웰빙 증진을 위해 일상적인 농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 실천에 기반해야 함. |
| Chovanec, Hudcov. & Moudr. (2015: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은 광범위한 활동들로 구성되지만, 언제나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공통 요소를 지닌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농활동 또는 농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활동. ② 일시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특수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활동. - 사회적 농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수한 요구를 지닌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통합. ② 전문적인 사회적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의 재활 및 치료, 취업 준비. ③ 농업활동, 농촌 문화, 경관 관리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해 더 나은 지식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 등의 활동. |
| Assouline(2015) | <p>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초대해 사회통합, 노동통합, 치료적 동반을 목적으로 농업 생산물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p> |
| Crowley, O'Sullivan, & O'Keefe (2017: 7) | <p>장애, 질병, 연령, 중독,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risk)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건강, 사회, 교육, 직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려고 작동 중인 농장에서 경관이나 영농 활동 등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가축, 원예, 작물, 농기계, 숲 등과 결부된 영농-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촉진하며, 감독한다.</p> |

자료: 김정섭 외(2017: 5-6).

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름하에 펼쳐지는 활동 유형으로 돌봄, 재활, 교육, 일자리 제공, '치료적 OO' 등의 단어들 나온다. 이들 단어에 당연히 곁붙어서 '영농(혹은 농업)farming'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의 배경으로서 '지역사회'라는 말이 등장한다. 유럽에서 논의된 개념은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정책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 최초의 연구(김정섭 외, 2017)에서 참조되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참조한 것은 Iacovo & O'Connor(2009: 11)의 서술이었다. 이 서술은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등장한 것인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여러 회원국의 사회적 농업 연구자들이 함께 추진하게 한 정책 연구의 결과물이어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2. 한국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신문매체에 등장한 최초의 사례는 2012년 2월 17일자 광주 매일신문의 기사일 듯하다.⁶ 이 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념과 다르지 않다(글상자 1). 한국의 학술논문에서 '사회적 농업' 사례가 소개된 자료는 김정섭(2013)의 논문일 듯하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꿈이자라는뜰"을 언급하면서 '사

⁶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http://bigkinds.or.kr>)에서 검색한 결과다.

회적 농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두 자료에 소개된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요소는 '장애인', '돌봄', '지역사회'다.

〈글상자 1〉 한국의 신문매체에 처음 등장한 사회적 농업 사례(광주매일신문, 2012년 2월 17일)

요즘 농촌을 가면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부농들이 적지 않다. 역대 수입을 올리는 부농들도 늘고 있다. 이 중에는 농정 당국이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의 규모화를 유도, '몸집'을 키운 농업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소농들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소농은 대농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시간이 갈수록 소농들이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성 황룡면 황룡리에는 참 특이한 영농법인이 있다. 들녘영농조합법인이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서 시나브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어서다. 우리 농촌에선 단어조차 생소한 '사회적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들녘영농조합법인은 7명이 조합원의 전부일 정도로 단출하다. 김영근(들녘길농원)씨, 정명조(해드림농원)씨, 정재근(풀향기농원)씨, 구서종(초록빛 농원)씨, 차상덕(각시불농원)씨, 유현열(불태산농원)씨, 김상운(제일화원)씨가 그들이다. 이들이 '사회적 농업'에 뜻을 둔 것은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정재근(54)씨 덕분이다. 10년 전 고향인 장성으로 귀농한 정 대표가 농사 멘토인 다른 조합원들과 2008년 말 법인을 설립하고 복지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

(중략)… 2001년 고향으로 돌아온 정 대표는 심신이 모두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태였다. 당뇨병까지 그를 괴롭혔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 주민들은 멘토를 자처하며 그에게 딸기 농사를 가르쳤다. 2008년의 일이다.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 농사를 시작한 정 대표는 스스로 자문했다.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의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농사의 멘토였던 '선배'들과 논의한 끝에 2008년 말 들녘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한다. 영농조합의 모토는 봉사정신으로 더불어 살아가자는 것, 즉 '사회적 농업'이었다. “주변 형님, 동생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겁니다. 자랑할 만한 게 아니어서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고 열심히 농사짓고 복지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들녘영농조합법인은 수익금의 7%를 적립, 장학사업과 장애인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의 소농들이어서 한계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 한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장애인 심리치료는 2010년 말부터 시작했다. 홍익대 미대를 중퇴한 정 대표가 자신의 미술 관련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마을 형님, 동생들이 미술 재능으로 복지사업을 하자고 권유한 것도 큰 힘이 됐다. 마을 주민들은 정 대표에게겐 이래 저래 멘토 이상의 의미

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다. 2주에 한번씩 진행되는 장애인 심리치료는 현재 12명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성, 함평 등지에서 수업을 받으러 온다. “아이들한테 그림이나 형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색의 구별방법부터, 색이 어느 요소에 들어가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색채 감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년째 심리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들녘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말 전남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이뤄진 복지사업은 장애우 미술학교 주2회 운영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 지급, 양로원 봉사, 지역 장애우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딸기 하우스 150평 규모 마련, 귀농인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및 협조 등 다양하다. 장애우를 위한 딸기 하우스는 지적장애인 6명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겼다. 재배, 관리, 생산, 판매까지 지적장애인들이 도맡아 한다. 들녘영농조합법인은 시설만 제공할 뿐이다. “수익금의 7%를 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피같은 돈입니다. 부농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농민들도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뿌듯해집니다.”

이후 2016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간행물을 중심으로 유럽의 ‘사회적 농업’ 사례들이 소개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적지 않은 한국의 학술문헌들이 ‘사회적 농업’을 다루었다.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에 관한 정책이나 사례들이 소개되기 시작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의 문헌

들에서는 ‘지역사회’, ‘사회통합(또는 포용)’과 같은 관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책 연구 보고서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이 출간된 이후의 사회적 농업 관련 문헌에서는 대체로 그런 관점이 생략되지 않은 채 개념이 정의되거나 서술된다.

표 2 한국의 연구들에서 드러난 ‘사회적 농업’ 개념 서술

| 구분 | 내용 |
|---------------|--|
| 이윤정(2016) | - 사회적 농업, 특히 치유농업은 “돌봄 농업”이라고도 불리며 농장과 농업 경관을 매개로 한 영농활동을 통해 신체, 정신 건강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 <네덜란드의 문헌,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관련 문헌을 위주로 검토> |
| 임송수·김승애(2016) | -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 등의 이익을 창출할 목적 아래 취약계층을 서비스 대상으로 영농 및 기타 농업활동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
| 임송수·임지은(2017) |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기반으로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의 이익 창출 <이탈리아의 문헌을 위주로 검토> |

| | |
|---------------|---|
| 임승수(2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및 농촌 근교에서 작물이나 가축 등 농업자원을 사용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재활과 치료 및 치유, 직장, 평생교육, 사회통합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또는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장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 - 지역 공동체와 비공식 조직 기반의 관리, 대상으로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복지, 농업 생태계와 인간의 복지 사이에 명확한 연계. |
| 안규미(2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나라의 사회적 농업들에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재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통되지만 실천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려움. |
| 김정섭 외(2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통합, 돌봄, 직업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농업 활동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려는 실천. |
| 황수철(2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농업 실천. |
| 유리나·황수철(20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혹은 농촌자원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는 실천. |
| 전용일(20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범죄피해자, 사회 부적응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업에 복지와 고용이 결합된 형태. -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농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는 활동. |
| 조원지(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경제·환경 서비스로,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공공재로서 사회 안에서 취약계층에 ‘돌봄’, ‘고용’, ‘교육’으로 구분. - 지역사회의 역할과 실천 주체 및 수요자의 사회통합과 포용을 이룸.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모델로 제안됨. |
| 이수행(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게 영농활동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농업 부문의 새로운 소득원도 창출하는 활동 |

위의 보고서가 국내의 사회적 농업 연구자들 사이에 모종의 합의 도출을 견인할 만큼 설득력이 있었을 리는 없다. 그 보고서에서 제안한 관점을 수용해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관점이란 사회적 농업 실천의 두 차원, 즉 ‘기능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중에서 ‘관계적 차원’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다는 것은 ‘농민이 농장 활동 참여자에게 모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의 전문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기능적 차원)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농업 실천은 그 자체로 ‘농민과 농장 활동 참여자, 농민과

주변의 지역사회 구성원 등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관계적 차원)는 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심지어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보다는 ‘돌봄농업care farming’이라는 말이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돌봄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중요시되며, 돌봄농장을 아예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농업을 하나의 부문으로 형성시켜낸, 즉 기능적 차원과 전문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네덜란드에서조차 관계적 차원은 아주 중요하게 간주된다. 네덜란드 돌봄농업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하싱크Hassink는 사회적 농업을 두고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 사회·보건 돌봄community-based social/health care이라는 두 개념 안에 위치한 혁신적인 접근방법”(Hassink, 2009: 21)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지역사회-기반’이라는 표현이 바로 관계적 차원을 의미한다.

“하싱크는 ‘농업, 돌봄 등 각각의 직능 영역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넘나들며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경계 확장자boundary spanner로서 인적 자원’, ‘협업을 위한 동기 유발’, ‘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내부로부터의 정당성 및 지지 확보’, ‘재정 지원’, ‘전문기관 내부의 개방적인 조직 문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Hassink, 2017). 이아코보는 ‘농촌발전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사회통합을 중요 의제로 설정하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 간의 연결’, ‘부문(농업, 보건, 교육 등) 간에 새로운 집합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과 혁신적 해법과 새로운 규칙을 창출할 수 있는 전환과정process of transition’ 등을 제시했다(Iacovo, 2014). 두 선행 연구에

서 공통되게 강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분야 간에 ‘새로운 관계 맺기, 소통과 협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도 부문별·직능별 행위자(기관, 단체, 개인 등) 간의 연계와 협력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의 중요한 조건임이 확인된다. 장애인 돌봄 농업 사례로 알려진 충남 홍성군의 행복농장은 수년 전부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의 농업인들이 협력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근년에는 홍성군 보건소 및 도시 지역의 정신건강 분야 돌봄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기획·실행·평가, 비용 확보, 홍보 등의 여러 측면에서 그 같은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확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기획될 때, 행복농장의 그 같은 경험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지원 사업 첫해에 사업 대상지 농업인 등 관련자들에게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협력 네트워크를 잘 형성한 곳일수록 사회적 농업 실천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충청북도 보은군의 성원농장은 보은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전라북도 무주군의 ‘농업회사법인 팜앤씨티’는 무주 종합사회복지관,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단, 무주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여러 곳, 국립 인터넷드림학교,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력 연결망을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 임실군의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도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익법인들과 전라북도지방법원이 후원하는 범죄피

해자 지원센터 등과 협력 관계를 맺어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사회적 경제 부문 조직들의 연합 조직인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농업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인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이랑',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고 있다.”(김정섭 외, 2019: 2-3).

2.3. 관련 정책에서 드러나는 개념 규정

사회적 농업 실천을 촉진하려는 정책사업의 시행지침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규율하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고 약칭한다)을 살펴본다. 지침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농림축산식품부, 2022: 597).

일견, 돌봄이나 교육이나 고용 등 '기능적 차원'은 드러나 있지만 '관계적 차원'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침상의 정의 규정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정확하지 않은 명칭 사용(가령, 건강증진센터) 등의 오류는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농업 실천의 관계적 차원이 한껏 강조된 지침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정책사업(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나, 타 정부부처의 정책(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사업, 주민자치회,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등)과의 연계 혹은 결합을 권장하고 있다.

〈글상자 2〉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의 사회적 농업 판단 기준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② ①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③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 보건소, 병원, 정신건강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건강증진센터, 학교, 학부모, 농업인 등이 사회적 농업 농장 운영에 참여.

-지역의 역사·환경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강연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 융화 유도.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3 ‘경계선 긋기’는 욕망인가, 전술인가

유럽에서 발전한 사회적 농업이라는 실천이 국내에 소개되고 확산되며 관련된 정책사업(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해 텍스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사회적 농업의 개념은 기능과 관계라는 두 차원에서 구성되는데, 외국의 논의나 사례가 소개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관계적 차원’의 개념 구성요소를 누락한 텍스트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관련 학술 텍스트에서는 대체로 ‘관계적 차원’의 개념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언표를 명칭에 포함한 유일한 정책사업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침에서도 ‘관계적 차원’은 충분히 포섭되고 강조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는 식의 질문,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농업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던가, 협소하다는 식의 문제 제기가 계속된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리적인 텍스트를 통한 문제 제기는 적은 편이다.⁷ 다른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된다. 그 다른 입장이란 무엇일까? 대략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 듯하다.

첫째는 사회적 농업 실천의 주체나 활동 유형을 어떻게 한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인데, 협력과 연대라는 사회적 농업의 관계적 차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라고 짐작한다. 다른 지면紙面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우리는 전문성을 미덕으로 숭앙하는 풍토에 길들여져 있다. 저마다의 직능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을 긋고, 선 안팎을 구분하면서, 그어진 영토 안에만 머물러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설피 보이는 아마추어들이 경계선을 넘나들며 무언가를 함께하자고 나서는 풀이 내 전문성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저급하고 불안한 의도로 읽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식의 거부감은 어쩌면 고도로 분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이 어려서부터 자기 몸에 기입하여, 원초적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려워도 아주 자연화된 욕망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분화는 불통의 씨앗을 간직하기 마

7 사회적 농업에 관한 학술 연구가 적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련이며, 전문화는 폐쇄성의 암초를 만나기 십상”(김정섭, 2022: 10)이다. 경계를 긋고 싶은 욕망 못지않게 경계를 허물고 협동하려는 욕망도 기초적인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사회적 농업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둘째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을 꺼내어 모집합-부분집합 놀이를 하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제기가 ‘치유농업’이 ‘사회적 농업’을 포괄하는 범주 개념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아니면 양자 사이에 교집합이 있는가, 라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 모집합-부분집합 놀이를 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 글에서 상설詳說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잠깐 참견하자면, 치유농업은 영어 care farming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이다. 영단어 care 에는 한국어로 치유를 뜻할 수 있는 cure, heal 등의 의미가 없는데도 굳이 ‘치유’라고 번역한 의도는 뻔한 것이다.⁸ 백번을 양보해서 영어 ‘care’라는 단어는 잊어버리고 ‘치유’라는 한국어만 보더라도, ‘치유’라는 말에서는 관계적 차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관계가 있다면, ‘치유하는 자와 치유 받는 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있을 뿐이다.

유행하는 단어로 포장해서 새로운 정책 용어로 부각시키고, 그것을 활용해 정책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흔한 전술이다. 농촌진흥청의 ‘치유

8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접속해 옥스퍼드 영영사전 사이트에서 ‘care’라는 표제어로 검색해 보시라. 오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어떤 문건에서는 ‘care farming’이라는 말 옆에 ‘agro-healing’이라는 표현을 병기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애처롭게 보일 지경이다.

농업 육성 정책’은 그저 조직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그렇게 ‘치유농업’이라는 텍스트에 금박을 입혀 선명하게 내세우고 요란하게 선전하지만, 실제적인 맥락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의 농업용어사전에는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치유농업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생계망계한 개념 정의가 등재되는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혹은 어떤 것이 더 포괄적인 범주의 개념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요즘 들어 많이 듣는다. 그때마다 그런 질문이 지적인 호기심에서 비롯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심증이 굳어진다. 다른 동기란,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육성 정책이라는 열차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열차, 둘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서 승차해야 경제적으로 이익이겠냐는 고민을 말한다.⁹ 치유

9 사회적 농업 정책은 가야 할 길이 멀고, 솔한 숙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서야 혹은 아직도 출발선에서 몇 발자국 지나왔을 뿐이다. 그런데, 치유농업 전문가를 자처하는 어느 박사(역시, 내가 아는 인물이다)가 농촌을 돌아다니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공모될 때 그 계획서를 대필해주고 수백만 원의 사례를 받는 괴랄한 짓을 벌인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심하게 걱정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어느 지역의 농민들 사이에 보조금 나눠먹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갈라섰다는 소식도 들었다. 역시 걱정스럽다. 일부 소수의 이야기라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농업 육성 정책은 ‘치유농업을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혹은, 산업) 부문으로 키우겠다’는 홍보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서 인정을 받아야 펼쳐질 블루오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피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일 뿐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 ‘사회적 농업’이 관련되어야 하는가? 사회적 농업은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로 성립될 수 없고, 성립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농업은 순전히 봉사과 희생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발제를 요청한 분 중에는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명쾌하게 규정하여 치유농업 등과의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줄 것을 예상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경계선 긋기’나 ‘비교’는 동일한 차원(또는 수준level)을 전제해야 가능한 일이다. 20리터 들이 물통과 30센티미터 자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큰 물건’인지를 논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애써 긴 글을 읽어 온 독자들에게는 미안한 노릇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확정적인 답변을 제공하려 애쓰는 일이 그다지 생산적인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사회적 농업 실천이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역사회에서 협동과 연대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위의 질문일 듯하다. “사회적 농업은 복고적 혁신retro-innovation이자 회색지대grey area”라는,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지금 으로서는, 개념상의 회색지대는 가능한 한 회색으로 남겨두고 실천에 힘쓰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지 않을까?

〈참고문헌〉

- 김재정(2012), “소농 7명 뜻 모아 수익 7% 적립 ‘사회적 농업’ 실천”, 광주매일신문 2012년 2월 17일자 기사.
- 김영민(1996),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문학과지성사. 김영민(2010), 《공부론》, 샘터.
- 김정섭(2013).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흥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23(2): 173-223.
- 김정섭(2022), “결을 내주고, 당기되 쏘지 않는 것-합리와 정리의 사잇길에서”, 《사이통신》, 6호,
-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김정섭·나현수(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력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22),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 안규미(2017). “독일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제19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수행(2020). 《사회농업, 전통농업 이상의 가치》, 경기연구원.
- 이윤정(2016),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care farming)을 중심으로”, 《세계농업》, 제19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우(1993), 《담론의 질서》, 새길.
- 임송수(2017), “사회적 농업: 결론 및 시사점”, 《세계농업》, 제19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김승애(2016),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세계농업》, 제19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임지은(2017),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현안분석 제2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용일(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방안 고찰: 비농업경영체의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농지소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67: 341-369,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조원지(2020),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 존 풋(2019), 《정신병원을 폐쇄한 사람》, 권루시안 옮김, 문학동네.
- 황수철(2017), “다기능 농업의 확산을 위해”, 《농정연구》, 2017년 가을호, 농정연구센터.
- Assouline, G.(2015), The French social farming model under pressure: The role of a territorial network like ASTRA, Paper presented in AgUrb 2015 Conference, Roma.
- Chovanec, T., Hudcov, E., & Moudr., J.(2015), Social Farming: A document prepared in the framework of the Working Committee for Social Farming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Czech Republic.
- Crowley, C., O’Sullivan, S., & O’Keefe, B.(2017), An Evaluation of Kerry Social Farming 2017, Ireland: Commiss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reas.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2).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Social farming: green care and social health policies’, Brussels: EESC.
- Fazzi, L.(2011),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Farming in Italy”, Sociologia Ruralis, 51(2): 119-136.

- Hassink, J.(2009), “Social farming across Europe: overview”, F. Di Iacovo and D. O’Conor(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 Hassink, J.(2017). Understanding Care Farming as a swiftly developing sector in the Netherlands, PhD. Thesis, Amsterdam Institute of Social Science Research, University of Amsterdam.
- Iacovo, F.D. & D. O’Conor(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 Iacovo, F.D.(2014). “Social Sustainability in Agriculture”, Proceedings of Congress Italian Society of Agricultural Economics, Lecce(Italy), September.
- Thomas, A.(2004), “The Rise of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5(3): 243-263.

2022년 사회적 농업 공동연수, '정신장애'와 '발달장애'

이이수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주최로 진행된 기본공동교육이 지난 4월 21일과 28일에 진행되었다. 활성화사업 농장 대표 및 실무자와 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의 대표 및 코디네이터를 주 대상으로 하여 마련된 총 5회기의 공동교육은 크게 전체공통과 주제공통, 실제 사례공유 시간으로 나뉜다. 전체공통은 5회기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는 교육이며, 주제공통은 각 회기별로 정신장애, 발달장애, 노인문제, 청년문제, 아동문제를 다룬다. 실제 사례공유 시간에는 해당 주제의 내용으로 현장 실천사례 및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4월 21일에는 '정신장애와 사회적 농업'이란 주제로 대전 대철회관에서 교육이 준비되었다. 교육은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정신과 전문의이자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안병은 이사장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의 사례와 효과를 발표하였고, 다음으로는 김정섭 박사의 사회적 농업의 기초 이해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콩세알,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행복농장이 실제



사진 1

2022년 4월 28일에 진행된 '사회적 농업과 발달장애' 공동교육 단체사진.



사진 2

2022년 4월 21일에 진행된 '사회적 농업과 정신장애' 공동교육 강의를 끝나고,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실천 사례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40명의 농장 대표와 실무자가 참석했다. 안병은 이사장은 정신질환은 질환 자체보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태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크며, 돌봄 종사자는 돌봄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들의 삶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김정섭 박사의 '사회적 농업의 기초 이해' 시간에서는 지금의 사회적 농업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다양한 외국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원활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며,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농업 확산 방법에 대해 제언하기도 했다.

실천사례 공유 후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행정 일의 어려움과 고민,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으로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 및 해결방법에 대한 사례,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이 보다 잘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방법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어지는 2회차 기본공통교육은 4월 28일, 오송CV센터에서 '발달장애와 사회적 농업'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정섭 박사의 '사회적 농업의 기초 이해'를 시작으로 김태명 하람사무국장의 '발달장애'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사회적 농업 실천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변화로 이어졌으며, 참여자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는 조직의 관계자나 부모와 참여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에 대해 알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실제 실천사례발표 및 토론에는 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과,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큰나무캠프힐이 함께했으며, 현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행정적 한계점을 풀어나간 사례와 보다 세부적인 사회적 농업 실천방법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앞으로 남은 기본공통교육 3회는 5월 12, 19, 26일에 진행된다. 이후에는 각 거점농장별 심화학습을 준비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본래 담고자 했던 실천가치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저변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현장 스케치

5회차 대전·충남권 공동학습모임, '사회적 농업과 지역공동체'

박성경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협동조합 행복농장 주최로 4월 26일 우리마을돌봄영농조합법인에서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공동학습모임이 개최되었다. 공동학습모임은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주제를 함께 학습하는 모임으로 작년에 이어 5회째 개최되었다. 이번 모임은 김정섭 박사의 '사회적 농업과 지역공동체' 강의와 우리마을 돌봄영농조합법인 최문철 사무국장의 농장 활동과 실천 경험 발제로 진행하였고 대전·충남지역 농장 대표와 실무자, 사회적 농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33명이 참석 하였다. 모임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올바른 실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농장 간 네트워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며, 다음 공동학습모임은 5월 24일에 진행된다.



사진 1 5회차 대전·충남권 공동학습모임에서 실천사례를 공유한 우리마을돌봄영농조합법인의 참여농장 중 한곳인 꿈이자라는뜰을 라운딩하고 있다.



사진 2 5회차 대전·충남권 공동학습모임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

현장 스케치

2022년 대전·충남권 제1차 민관간담회

이이수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청 주최, 협동조합 행복농장 주관으로 진행된 충남·대전권 민관간담회가 지난 4월 11일,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다. 사회적 농업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 실무자, 코디네이터와 관련 공무원 4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된 본 간담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섭박사의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경험이 있는 기존 사회적 농업 농장 5곳(정다운농장, 우리마을돌봄영농조합법인, 청양푸드, 손수레, 행복농장)의 실천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2022년 사회적 농업 사업에 대한 소개 및 설명 등을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한채형주무관과 행복농장이 이어 설명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문지영사무관과 농어촌공사의 이혜경 차장, 충청남도청 농업정책과 복화경 팀장,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상임이사가 게스트로 참석하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의 정민철 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사회적 농업, 함께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마지막으로 간담회가 마무리되었



사진 1 2022년 제1차 대전·충남권 민관간담회 단체사진.

다. 이 자리를 통해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고민들과 제언들을 나누었다. 사회적 농업을 알아가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함께 듣고, 고민을 나누는 본 간담회를 통해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이 운영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다음 민관간담회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일정 안내

◆ 2022년 대전·충남권 제6차 공동학습모임

- 일시 / 7차_ 2022년 6월 21일 10:00~12:00
8차_ 2022년 7월 19일 10:00~12:00
- 장소 / 땡큐베리팜
- 내용 / '농업과 돌봄(복지)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강사: 여민동락 권혁범 대표)' 강의를 듣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강의를 끝난 후에는 사회적 농업 실천 경험을 공유합니다.

◆ 2022년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 일시 / 2022년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 장소 / ZOOM으로 진행
- 내용 / 제주대학교 김자경 교수가 발제를 맡은 '농업농촌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의미'라는 주제로 함께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회적농업의 실천과 담론을 전하는

사이통신 7호

펴낸 날 2022년 6월 2일
펴낸 곳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펴낸이 사회적농업거점농장협의체, 협동조합 행복농장
글쓴이 김영란, 김정섭, 박진숙, 전병오, 이은경
간지 사진 김세빈
제작 시골문화사